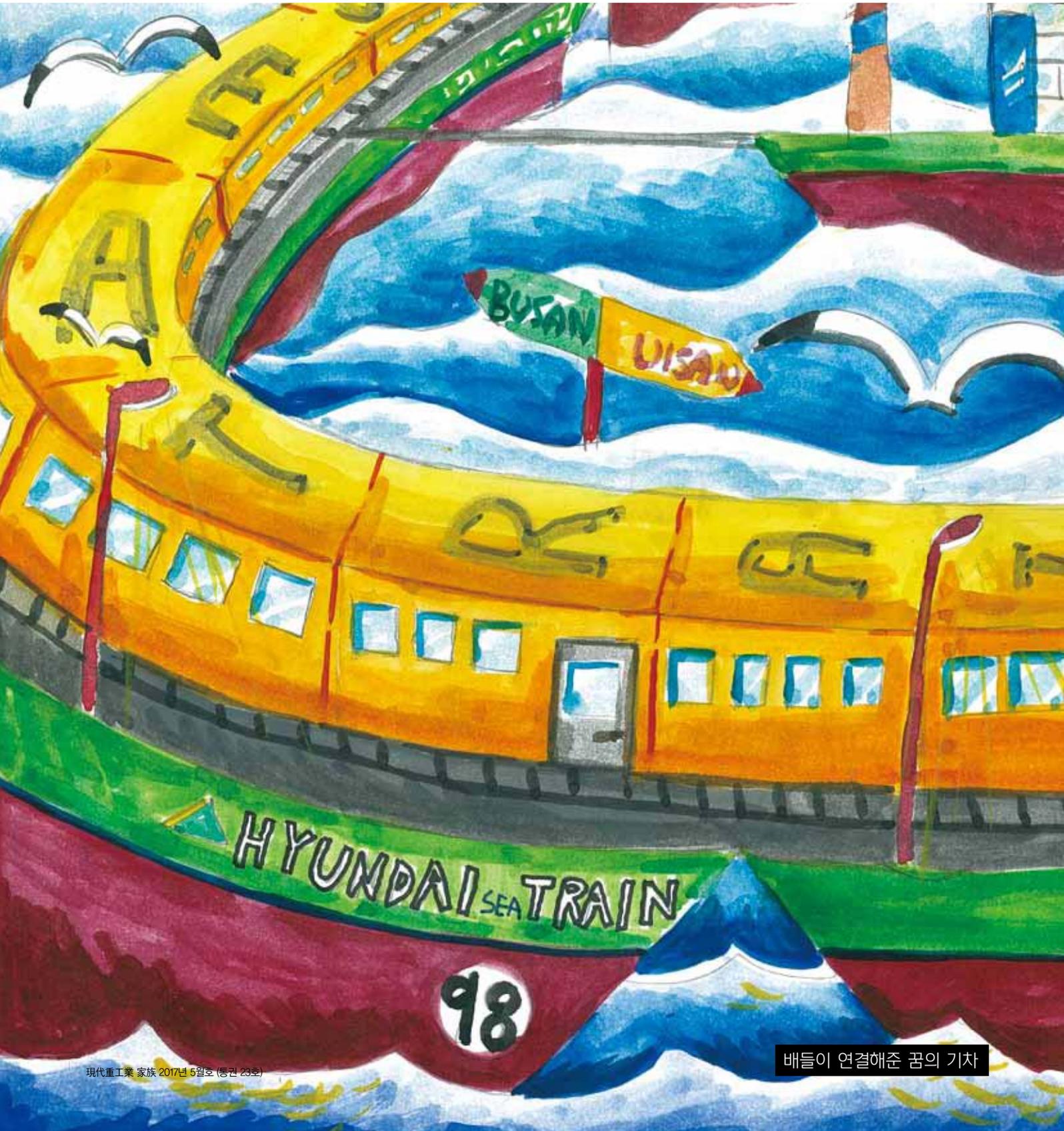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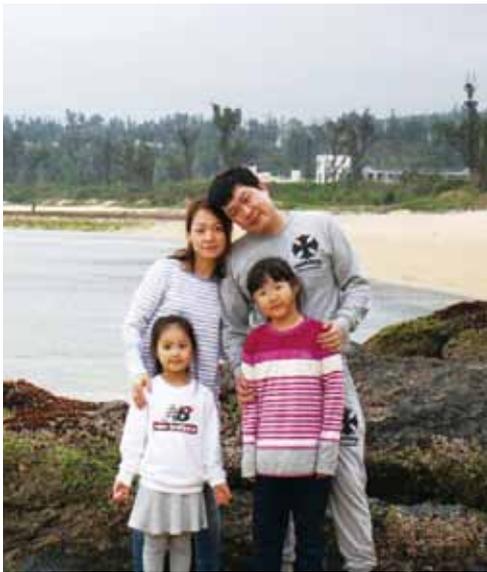


현대중공업가족

05
2017



이달의 표지 주인공



김서영 양(백합초 5학년)
김병수 사위(㈜청명기업)의 자녀

“바닷길을 달리는 꿈의 기차”

5월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영그는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일들이 많아 1년 중 가장 사랑과 감사함이 넘치는 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들이 연결해준 꿈의 기차’라는 멋진 작품을 그려준 김서영 양은 화가라는 꿈을 예쁘게 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화지 앞에 붓과 물감을 놓고 어떤 그림을 그릴까 구상하는 시간이 일상의 행복이라는 서영 양.

그 손끝에서 탄생한 이달의 표지는 기차를 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가족과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바닷길 위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는 이미 많은 건물과 도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다 위로 기차길을 만드는 것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새로운 미래 사업이 될 거라는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것이죠.

멋진 그림을 그려 열심히 일하는 아빠와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서영 양. 그 간절한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 커뮤니케이션선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05

Contents



04 새로운 출발, 희망의 미래로!

독립회사 탐방

①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06 소개합니다

08 인터뷰 / 대표이사 주영걸

10 새동지, 새출발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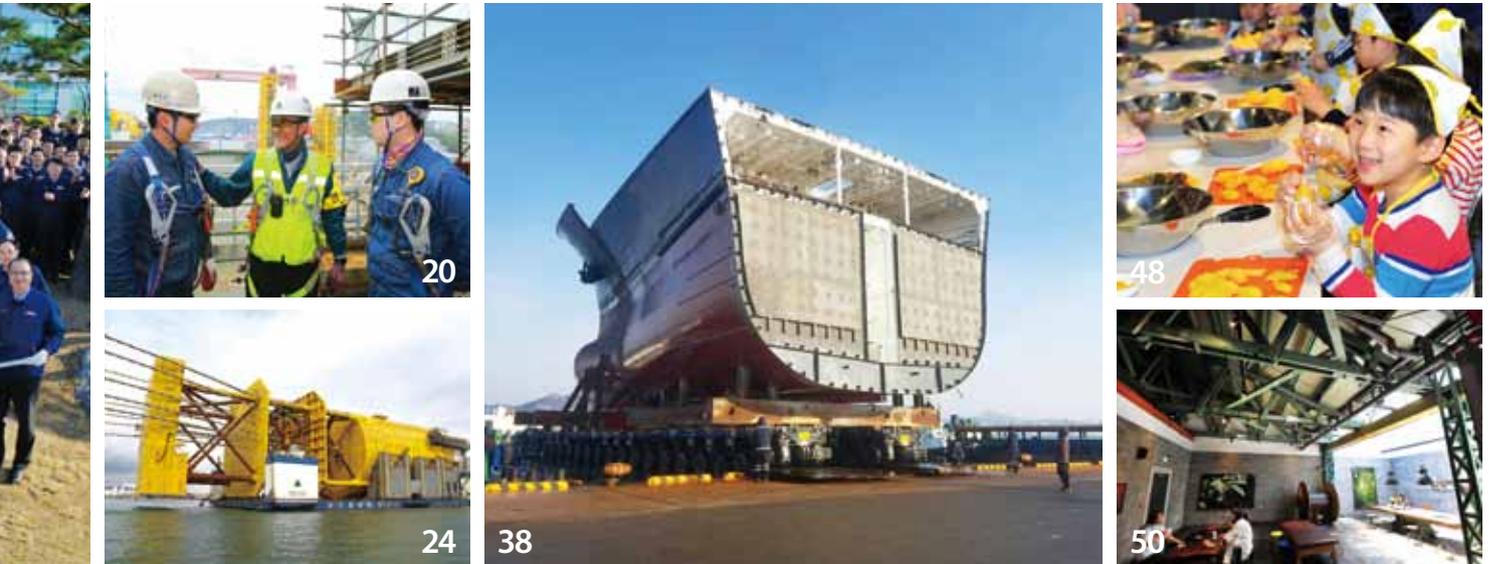
행복한 가족

12 자녀 소통법

14 한 부서 두 커플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설계부

16 요리하는 아빠

18 마음을 전하다



사람 · 일

- 20 현장을 가다
현대중공업 AASTA HANSTEEN
TOPSIDE 공사부 구조팀
- 24 공사 수행기
현대중공업 AASTA HANSTEEN
SPAR 공사
- 26 우리 부서 미나사보
현대미포조선 구조설계부
- 28 미래를 말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30 CDO를 만나다
현대중공업 김태환 전무
- 32 이달의 도전
하루에 한 번 착한 일하기
/ 현대미포조선 이정곤 대리
- 34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중공업 오정환 기원이
차순구 기원에게
- 36 품질이 경쟁력
현대중공업 품질경영 강화
- 38 든든한 파트너 (주)유일
- 40 그때 그 시절
1977·1987·1997·2007년 5월

지역 · 삶

- 42 이달의 모임
현대중공업 HIT 불링회
- 44 만나보았습니다
사진작가 남광진 씨
/ 현대미포조선 남수연 기원 아버지
- 46 맛있는 이야기
주천 돌미역
- 48 자녀와 함께
요리체험 공간 '스튜디오 M'
- 50 가볼 만한 곳
복합문화공간 부산 'F1963'
- 52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화정동 윤정수 씨
- 54 건강칼럼
편두통
- 56 나를 만나는 시간
가족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

보람의 일터

- 58 회사 주요 소식
- 62 그룹사 소식
- 64 문화 포커스
앤서니 브라운展 - '행복한 미술관'
- 66 축구단 소식
- 68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플라워 아트
- 69 트렌드 따라 잡기
미니멀 라이프
- 70 사우 자녀 그림 공모전
- 71 현중 가족 글마당
-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 80 생활법률
- 81 만화
- 82 쉬어가는 페이지

푸른 해송(海松)처럼 굳세게 뻗어나갈 것

4월 1일, 현대중공업이 4개사로 분리되어 힘찬 새 출발을 시작했다.
사업분리 후 첫 근무일이었던 4월 3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분리된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6개사는
현대중공업 본관 앞에서 '새 출발 기념 식수' 행사를 갖고, 독립법인의 성공적인 출범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 권오갑 부회장, 강환구 사장과 주영걸 현대일렉트릭 대표,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대표, 윤중근 현대로보틱스 대표, 김성락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대표, 안광현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 등 3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또 현대hips, 현대E&T, 현대중공업MOS, 현대중공업터보기계 등 자회사 대표들도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사업분리는 그룹 전체 발전의 계기”

행사 참석자들은 40년생 해송(海松)을 함께 심으며, 사시사철 푸르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해송처럼 각 회사가 번성하길 기원했다. 이날 심은 해송은 4개의 큰 줄기와 2개의 작은 줄기를 가지고 있어, 마치 새로 출범한 4개 회사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2개 회사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현대중공업 사업분할 및 새출발기념

현대중공업 /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보틱스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 현대글로벌서비스

2017. 4. 3(월)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오늘 심은 나무가 300년 된 본관 앞 곰솔나무처럼 오랫동안 자라나길 바란다”며, “창사 이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사업분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룹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오늘은 각 사업이 생존을 위해 새 출발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제 각 독립법인들은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창업의 각오로 환골탈태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까지 기술개발에 3.5조 투자

한편,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4사는 독립법인 출범과 함께 '제 2의 도약'을 위해 △2021년까지 기술개발에 총 3조5천억원 투자,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 1만명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술·품질 중심의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조선·해양플랜트·엔진 사업 중심으로 재편된 현대중공업은 5년간 시설투자 3천9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500억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친환경 선박 및 스마트십 개발과 해양플랜트 설계 능력 강화, 스마트 야드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고품질 제품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각각 6천800억원과 6천900억원을 신제품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제품 라인업을 확대, 세계 우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로보틱스는 OLED 공정용 로봇 사업 확대와 서비스 사업 확장을 위한 부품 공용화 개발, 클린룸 신축 등에 1천100억원을 투자한다.

고품질 확보와 新인사제도 시행

현대중공업 등은 기술투자 확대와 함께 고품질 확보로 각 사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생산이력 추적 관리를 통해 품질실패 예방에 집중하고,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은 신뢰성센터 구축과 클린룸 증축으로 제품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사는 기술, 품질에 중점을 둔 미래경영을 펼치기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 4천명에서 오는 2021년에는 1만명으로 늘리고, 신인사제도를 도입해 직무 성과가 합리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과 회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은 출범에 맞춰 자체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4월 1일 독립회사로 출범한
현대중공업그룹 4사는
'기술·품질 중심의 경영'으로
제 2의 도약을 다짐했다.



출범 직후 전기전자 대표 기업 등극, 에너지 新시장 선점 위한 질주 시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주)(이하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국내 전기전자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 등극하며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고압부터 저압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앞선 기술로 국내 전기전자기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알아보자.



제품 국산화시장 개척으로 국내 대표 기업 '우뚛'
 현대조선중공업(현대중공업의 전신)의 전기부와 전장부로 시작한 현대일렉트릭은 1977년 2월 중전기사업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중전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 후 중전기사업본부는 독일 지멘스(Siemens), 미국 GE,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 등 세계 우수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기술 제휴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전기전자기기의 국산화를 실현해 왔다.

1978년 11월 중전기사업본부는 현대중전기(주)로 독립했으며, 고압 및 중전기 신제품 개발과 전력전자-제어시스템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비롯해 배전반, 회전기, 중저압차단기, 선박용 전장품 등을 국내·외에 공급하며 세계 중전기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현대중전기는 1994년 1월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로 다시 합병됐으며, 이후 터빈발전기공장 준공(1996년), 765kV 극초

고압 공장 및 시험설비 준공(1999년), 550kV 초고압차단기 공장 준공(2008년) 등 발전설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마케팅과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강화해 괄목할 만한 매출 증대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이 급속도로 둔화됐고, 이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시장 환경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전시스템사업본부는 설계 표준화, 제품 모듈화 등을 통해 경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인티그릭’ 출시로 ICT융합 新시장 선점에 주력

지난달 출범한 현대일렉트릭은 40년간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시장 전망도 밝다. 현재 연간 250조원 규모에 이르는 글로벌 전기 전자 시장은 세계 산업 발전과 더불어 2020년까지 연간 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배전변압기, 중저압 차단기 등 표준양산품 사업 규모를 매출의 30%까지 확대하고,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기존 주력 제품의 품질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전기전자 기기의 수요가 늘고 있고, 전기전자 산업과 ICT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신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3월 ICT솔루션 사업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인티그릭(IntegriCT)’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이는 전기전자 제품 및 산업자동화 기술에 ICT기술을 융·복합한 솔루션으로, 현대일렉트릭은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전력에너지의 생산·소비·판매·운영 통합 시스템을 통해 빌딩, 공장 등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비롯해, 선박 전장품의 감시·분석·원격 유지보수 등을 통한 ‘스마트십 솔루션, 고객에게 납품한 전력설비의 생애주기 동안 원격으로 관



▲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변압기 공장



리하는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의 사물인터넷(IoT) 기업 PCT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12월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맞춤형 시스템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

현대일렉트릭은 독립법인 출범으로 경영 전략을 한층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돼 변화가 빠른 전기전자 시장의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매출의 2.5% 수준인 기술투자 비용을 2021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리고, 유럽연구소 신설, 해외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현대일렉트릭이 걸어온 길은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의 역사를 관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국내 전기전자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며,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을 알려 온 현대일렉트릭.

기존의 전기전자기기 사업을 넘어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최상의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이들이 만들어 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본다.

“40년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세계 전기전자 시장 선도할 것”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은 2021년까지 매출 5조, 영업이익 5천억 달성을 통해 전 세계 첨단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주영걸 대표를 만나 세계 전기전자기기 시장의 전망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들어 보았다.

독립법인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신지요?

고품질 제품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가 지난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걸음을 뒀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글로벌 전기전자 시장의 규모는 연 250조원에 이르며, 산업 트렌드와 기술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거칠고도 매력적인 ‘기회의 바다’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전자 전문기업이자 전력솔루션 일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우리가 가진 품질과 기술,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전자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회의 바다’라고 말씀하신 글로벌 전기 전자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

글로벌 전기전자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기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시장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의 니즈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국내의 R&D센터를 통해 기술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FTA재검토, 반덤핑, 관세 상향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현지 생산 법인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현지조립 생산방식(SKD사업)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만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현대일렉트릭은 ‘현대(Hyundai)’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난 40여년간 전기전자기기 사업과 제어시스템, 조선해양 솔루션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조달체계(Sourcing Network)를 바탕으로 고품질 원자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정 및 협력사 관리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납기 유연성과 고객 대응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강점에 더해 이번 사업 분할로 전기전자사업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

“글로벌 전기전자시장은 산업 트렌드와 기술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거칠고도 매력적인 ‘기회의 바다’입니다”

사결정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전기전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독립법인 출범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기술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를 위해 유럽연구소, 품질신뢰성센터 등을 신설하여 글로벌 기술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을 큰 폭으로 확충해 매출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준 양산형 제품의 매출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십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 시장 등에 진출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선진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올해 현대일렉트릭의 사업 계획 및 경영 전략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세요.

독립법인으로서 첫 해인 올해 현대일렉트릭은 미주, 중동 등 주요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영업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가 개선형 모델 및 지역 맞춤형 표준모델의 개발 기간을 단축해 시장에 조기 출시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펼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으로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서의 자금조달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시아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관련 지역의 영업력을 강화해 신규 고객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새 출발을 지켜보시는 마음에 기대와 희망만큼이나 우려와 걱정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40여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 전 세계 135개국 3천600여개 고객사와 맺어온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대정신’을 함양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일렉트릭은 세계 전기전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일렉트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의 전진기지, 성남 퍼스트타워를 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퍼스트타워는 요즘 새로운 활기로 가득하다. 지난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사우들이 이곳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성남은 국내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첨단 산업의 지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룹 700여명 사우들의 새 동지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영업 인력을 한 데 모아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출범과 동시에 성남사무소를 개소했다.

현재 이곳 퍼스트타워에는 현대건설기계 영업과 설계, 개발 인력을 비롯해 현대일렉트릭의 영업 및 지원 인력 등 총 700여명의 현

대중공업그룹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3,4층에는 현대건설기계 23개 부서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2개 부서가, 5층에는 현대일렉트릭 16개 부서가 새로운 사무환경에 차츰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성남으로 근무지를 옮긴 사우들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근무지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비에 한창이다.



또한 기존에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 마북연구소 등으로 인원들이 분산돼 있었으나, 성남사무소 개소로 영업 및 개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이게 돼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현대건설기계 이상신 사원(30세, 생산법인지원부)은 “기존에 서울 사무소에 있던 영업부서와 울산에 있던 생산법인지원부가 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돼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한 곳에 모여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돼 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생산부서와 인력들은 기존처럼 울산본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다. 때문에 이곳의 직원들은 필요한 제도들을 보완해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근무지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비에 한창이다.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또 다른 즐거움은 복장에 있다. 울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사우들은 “근무복만 입다가 정장을 입고 출근하니 기분이 새롭다”며, “매일 보던 동료들인데 다른 사람 같아 보인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푸른 산책로, 맛집이 근처에

성남사무소는 쾌적한 사무 환경은 물론이고, 창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풍경으로 사우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건물 앞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해 서울 강남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지류 '탄천이 흐르는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 가벼운 운동이나 강바람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사우들도 점심시간을 활용해 산책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분당구청 앞 산책로와 중앙공원, 율동공원 등 가까운 거리에 푸르른 녹지가 많은 것 또한 장점이다. 덕분에 점심 식

사를 야외에서 즐기거나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우들이 많아진 것도 예전과 달라진 새로운 모습이다.

퍼스트타워에는 사내 식당이 없는 불편함도 있다. 하지만 건물 2층에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가 있고, 지하철역과 백화점 근처로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 찾아다니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특히 싸고 맛있는 집이 많아 벌써부터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인기 식당이 생겼을 정도다.

미래에 대한 설렘 가득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곳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현대일렉트릭 이지용 대리(33세, 경영기획팀)는 “근무지가 바뀌면서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중후하고 무거운 이미지와 차별화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이미지와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현대정신을 기반으로 하되, 전기전자 제품을 다루는 회사에 어울리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근무지를 발판으로 제 2의 도약을 시작한 두 회사. 이들이 이곳에서 그려나갈 행복한 소식들과 찬란하고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부모 되기

교육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읽고 공감해 주는 것이 청소년이 된 이후의 인지교육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감정코칭 기술'을 알아보자.

'행동'이 아닌 '감정'을 읽어주는 부모

감정코칭은 '아이의 마음은 공감하지만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두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관계의 기술이다. 세계적인 감정관계 연구가인 존 가트먼 박사는 "아이를 잘 키우는 첫 걸음은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성격이나 행동, 집중력, 대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은 채 걸음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울고 있을 때, 부모는 아이가 왜 우는지 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구는 행동에 초점을 두어 화를 내기 일쑤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주로 '감정'에서 나온다. 아이가 떼를 쓰고 짜증을 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몸짓이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도 감정을 느낀다. 다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





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감정코칭을 제대로 받고 있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정인 방향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감정코칭을 통해 긍정성과 자존감을 회복한 아이는 진정한 자아를 형성해 대인관계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된다.

'감정코칭' 핵심 5단계

존 가트먼 박사가 제시한 감정코칭 5단계는 다음과 같다.

감정코칭 1단계

아이의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읽기

아이의 감정을 단정짓기 전에 탐색과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감정코칭 2단계

아이가 보이는 감정이 강할수록 좋은 기회다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검사가 아니라 아이의 편이 되는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한다

감정코칭 3단계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라

수용, 경청, 공감을 잘하려면 양육자가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잘 알아야 한다. 문제 해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열린 질문으로 탐색해야 한다.

감정코칭 4단계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명료해져 대처법을 찾는 것이 쉬워진다.

감정코칭 5단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라

부모나 교사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질문 등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감정코칭도 때와 장소는 가려서

감정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감정을 읽을 상황이나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감정코칭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존재한다.

■ 아이와 부모 단둘이 있을 때

아이의 훈육은 아이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주

변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을 잠시 멈춰야 한다. 주변인들을 의식하느라 아이의 감정을 놓치기 쉽다.

■ 시간에 쫓길 때는 피하기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진정시키는 시간은 약 5~15분 정도이다. 그러나 부모가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이의 감정이 상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가 흥분상태이면 진정이 우선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할 부모가 화가나 있는 상태라면 제대로 감정을 읽어주기 힘들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가시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아이가 거짓 감정을 꾸밀 때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의 눈치를 보고 도리어 아이는 먼저 울음을 보이며 거짓 감정을 꾸며내기도 한다. 이 때 아이의 감정이 진심이 아님을 부모가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나쁜 행동이라 알려줘야 한다.

현대삼호중공업 감정코칭 프로그램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4월,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4회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경청 방법,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제 3의 방법, 가치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해법 등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부모의 역할을 배우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박광열 대리(36세/사업기획부)는 “딸아이가 떼를 쓰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바로잡는 대처방법을 배우고 싶어 신청하게 됐다”며 신청 계기를 밝혔다.

또한 박정호 과장(37세/기계시운전부)은 “훈육을 핑계로 아이들에게 공포감만 들게 했던 것 같아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며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4월 27일, 4주간의 '감정코칭' 프로그램 교육을 마친 사우들은 “아이들 양육법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상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모 노릇이다. 아이를 낳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반쪽부모'들이 넘쳐나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일도 사랑도 함께’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설계부는 사랑이 넘치는 부서로 유명하다.

챙겨주고 배려하는 부서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는 물론, 한 부서에서 함께 일하기 힘든 사내 부부가 두 커플이나 있기 때문이다.

선배 사내부부인 손현준 차장(41세)과 엄민경 과장(36세) 부부는 연애 시절 동료들의 시선이 우려돼 ‘비밀 연애’를 선택했으나,

그 비밀이 드러난 이후 더 큰 축복 속에 일과 사랑을 병행하고 있다.

입사 전에는 그저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도 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주환(39세)-문영주(35세) 과장 부부는 회사와 부서원들의 배려가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손현준 차장
엄민경 과장

부서 최고령 노총각과
야무진 신입사원의 만남!

동료들의 배려 속에 꽃 피운 사랑

‘눈치가 많이 보이진 않을까?’,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내커플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러움과 함께 이 같은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다.

손현준 차장과 엄민경 과장 역시 이러한 걱정 때문에 비밀연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몇몇 친한 동료들은 부서 최고령 노총각과 야무진 신입사원의 만남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배려해주었다.

손현준 차장은 “혹시라도 부서 분위기를 저해할까 하는 걱정에 만남을 철저히 숨겼다”며, “이 자리를 빌려 동료들에게 죄송함과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주환 과장과 문영주 과장은 입사 전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 문영주 과장이 입사한지 1년 후 이주환 과장이 같은 회사, 같은 부서로 입사하게 됐다. 우연이 아닌 인연의 시작이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둘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텄다. 문영주 과장은 “사내에서 함께 근무하면 상대방의 모든 성격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며, “이 정도 남자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선배부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탓인지 이주환 과장과 문영주 과장의 핑크



빛 기류는 금세 동료들에게 들통이 났다. 둘만의 데이트가 한, 두 차례 목격되자 부서에 소문이 퍼졌고, 결국 이들은 용기를 내어 만남을 고백했다. “동료들이 알게 되면 큰일이라도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쁘게 만나길 응원해줘 너무 감사했다”며, “오히려 더 잘 만나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도 생겼다”고 이들 부부는 말한다.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친구같은 부부

같은 회사, 그것도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함께 출근하고,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며, 퇴근 후에도 함께 하다 보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서로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웃어 보이는 이들 두 부부는 넘쳐나는 사랑만큼이나 출중한 실력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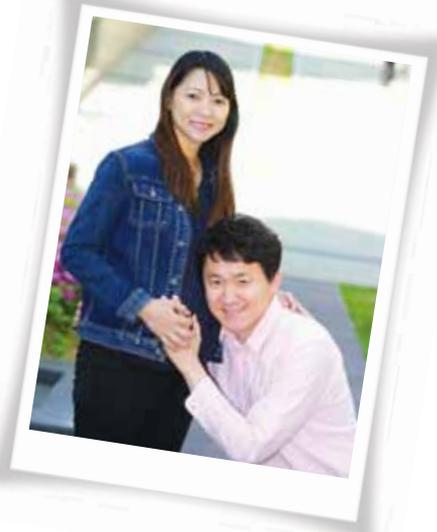
특히 엄민경 과장은 지난 3월 ‘변압기 최적설계시스템’을 개발해 우수성과 즉시 포상을 수상하는 등 남편의 든든한 지원 속에 실력 발휘를 톡톡히 하고 있다.

변압기설계부 부서장 양재철 부장(47세)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뿐 아니라 회사에서는 각자의 업무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서로의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발휘된다”고 말했다.

물론, 사내부부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한 사람이 자기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 흠이 상대에게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된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떨어져 있는 걸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해 준 회사와 동료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함을 전하는 두 부부는 뛰어난 업무성과와 깊어지는 사랑으로 사내부부를 향한 의구심에 명쾌한 답을 써내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평생의 소울메이트로써 일도 사랑도 척척해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저 알고 지냈던
오빠가 평생의
동반자로!

문영주 과장
이주한 과장



‘넥타이 대신 앞치마’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



가정의 달 5월이다.
바쁜 아빠들이 이때만이라도 가정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때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는 법,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자녀들이 ‘공인한’ 좋은 아빠 이대선 대리(35세/노사협력부)가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요리왕을 자처했다.



“서프라이즈로 요리나 해볼까?”

일주일간의 휴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 둘과 주말을 정신없이 보내고 난 후 평일 낮이 되어서야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이대선 대리.

“침대에 누워서 낮잠이나 자볼까 하는데,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그날따라 눈에 띄더라고요.”

소문난 잉꼬부부인 이대선 대리는 아내에게 요리를 곧잘 해주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러나 바빠진 회사 일로 지금은 요리를 했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정도라고 한다.

‘휴가를 빌미로 음식을 만들어주자라고 마음먹었지만, 갑자기 시작하기에는 쑥스러워 선뜻 행하지 못하고 부엌 앞만 서성이길 몇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외출한 시간을 틈타, 이대선 대리는 집 근처 마트에서 음식 재료를 사기 시작했다. 오늘의 깜짝 요리는 바로 아내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잡채’다.

한 손으로는 조리법 검색을 다른 한 손으로는 요리 손질을, 두 눈은 시계바늘을 향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 아내의 외출 시간은 넉넉 잡아봤자 2시간 정도였기에 세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느라 마음이 비뻤다.

요리하는 도중에 ‘과연 내가 맛있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 문득 자신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그런 아내에게 괜스레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요리를 했을 아내가 대견스러웠어요. 그걸 당연시 여길 뻔 했는데,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는 절대 투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 진짜 맛있어요!”

요리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오늘의 음식 ‘잡채’가 완성됐다.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니 뭔가 허전함이 느껴져 먹기 좋게 과일을 잘라



꼬치로 만들어 장식했다.

“아빠~”

멀리서부터 들리는 첫째 하랑(5살)이의 목소리와 함께 아내와 하울(2살)이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다.

“짜잔~” 드디어 고군분투하며 만든 음식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순간, 처음엔 어리둥절하던 아내는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그 모습에 이대선 대리의 마음도 행복해졌다.

항상 ‘멋진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대선 대리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와 얼굴을 마주할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 나는 대로 톱툰이 놀아주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즐기며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빠의 이런 마음을 알아서일까? “하랑이에겐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갑작스러운 물음에도 하랑이는 “잘 놀아주는 아빠”라며, “비람 불 때 밖에 나가서 연날리기도 함께 하고, 비행기도 잘 태워준다”고 순식간에 아버지상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문득 이대선 대리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각각 있을 때보다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가 더 향기롭고 깊은 맛을 내는 ‘잡채’가 마치 우리 가족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각기 다른 색깔과 다른 맛을 내고 있지만 함께여서 행복한 것이 가족이다.

5월 가정의 달, 이대선 대리가 소개하는 ‘잡채’로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보자. 대신, 이달의 요리사는 엄마가 아닌 아빠로.

이대선 대리의 잡채 조리법



준비물

당면, 표고버섯, 양파(1/4개), 잡채용 쇠고기 (1종 = 100g), 시금치, 통깨, 당근

고기 양념 : 설탕,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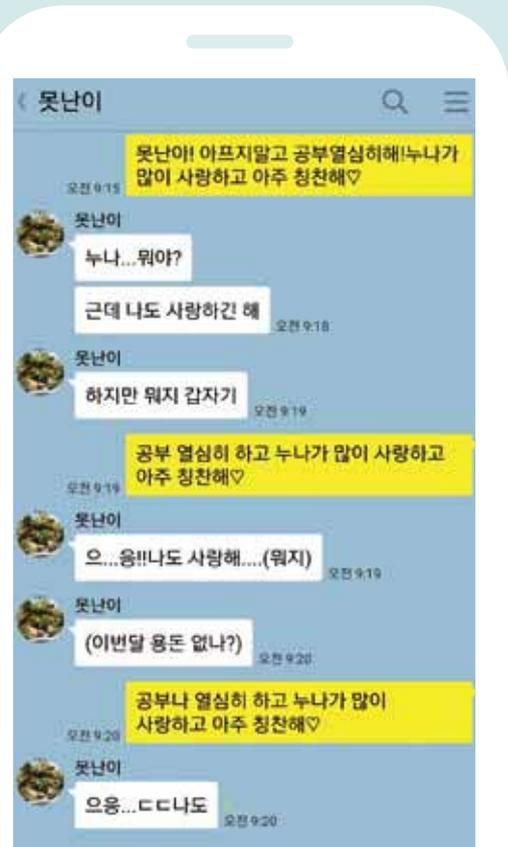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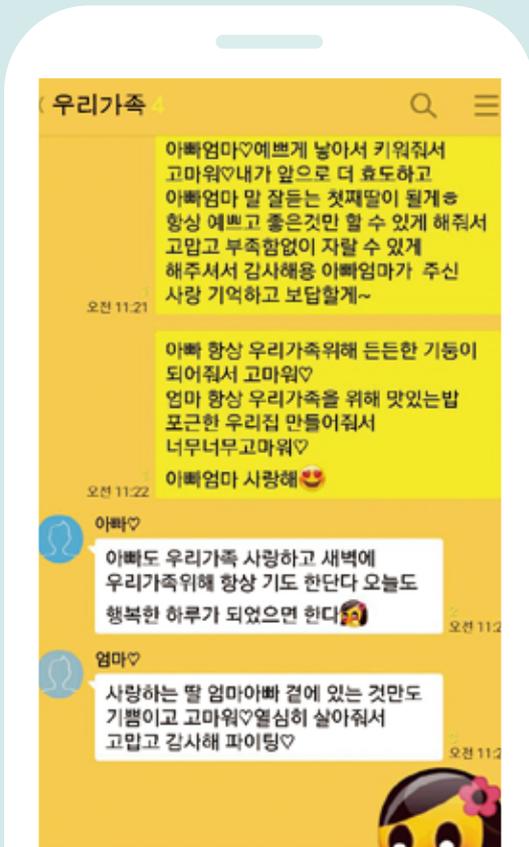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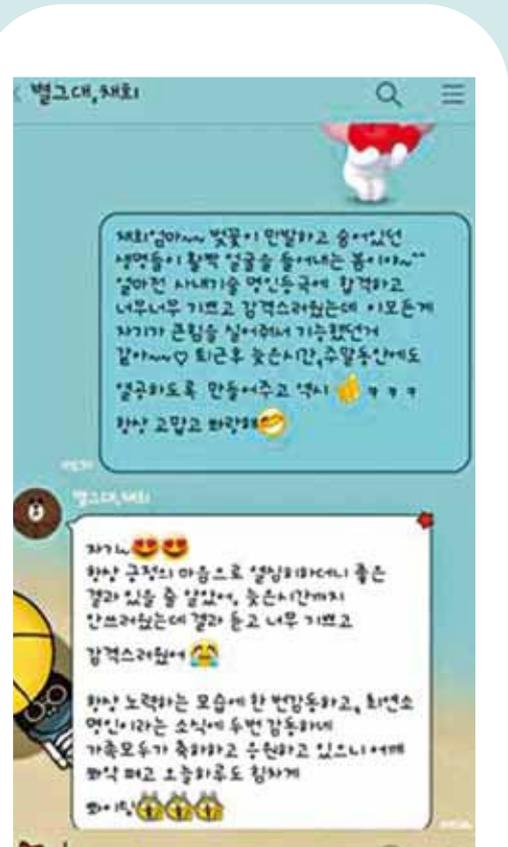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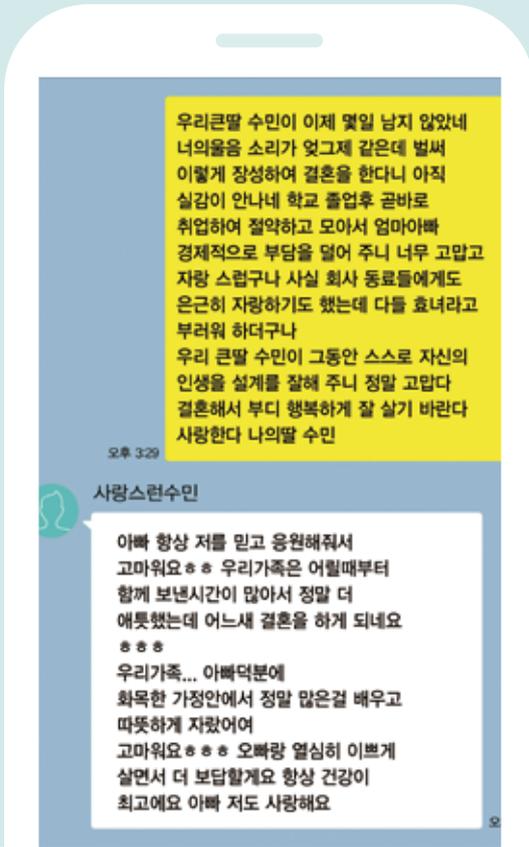
시금치 양념 : 소금, 깨소금, 다진 마늘, 참기름

당면 양념 : 설탕, 간장, 물, 다진 마늘

- ① 당면을 찬물에 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불린다.
- ② 고기에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를 넣어 밀간을 하고 재워둔다(10분 정도)
- ③ 당근과 파프리카, 양파, 버섯은 채썬다.
- ④ 시금치는 끓는 물에 소금(약간)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식혀 물기를 짜 양념을 무친다.
- ⑤ 달군 팬에 식용유(약간)를 두르고 양파-당근-쇠고기-버섯 순으로 각각 볶는다.
* 양파와 당근을 따로 볶아야 맛과 색을 살릴 수 있다
- ⑥ 재어놓은 고기를 볶아낸다.
- ⑦ 재료 손질이 끝나면 양념장을 준비한다.
: 간장과 올리고당, 후추와 올리브유를 넣고 중불에 끓인다. (올리고당 비율은 2:1)
- ⑧ 양념장이 끓기 시작하면 불린 당면을 넣고 익을 때까지 볶는다.
- ⑨ 볶은 재료들을 함께 섞는다.
- ⑩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마무리.

〈이대선 대리의 TIP〉

고기는 밀간을 해놓고 마지막에 볶아 양념이 잘 배게 한다. 양념장에는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 종류를 넣어 야 당면이 서로 붙지 않고 윤기가 난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해양플랜트 ‘에이스’들과 만나다!

현대중공업 해양 야드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있다.
노르웨이 최초의 심해(深海) 플랜트인 아스타 한스틴(Aasta Hansteen) 원통형 부유식 가스생산설비로,
지난달 높이 198미터의 원통형 하부설비(Hull)가 완성돼 노르웨이 해상으로 출항한데 이어,
현재는 상부설비(Topside)의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는 노르웨이 최초의 심해(深海) 플랜트로,
노르웨이 해역의 심해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조팀은
발주처의 까다로운 안전과 품질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며
완벽한 공사 수행의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고품질 작업 앞장

현대중공업이 2013년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스타토일(Statoil) ASA사로부터 수주한 이 설비는 노르웨이 북서쪽 300km 해상에 위치한 아스타 한스틴 유전에 투입돼 하루 2천300만입방미터(m³)의 가스와 5천660배럴(bb)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생산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아스타 한스틴 설비 제작에 있어 철저한 정도(精度) 관리로 발주처의 까다로운 안전과 품질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설계와 생산의 완벽한 호흡으로 도면과 실제 블록 간의 오차를 10mm 이하로 줄여, 조립 중 발생하기 쉬운 블록 간의 간섭이나 부딪힘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상부설비의 정도 관리를 책임지는 AASTA HANSTEEN TOPSIDE 공사부 구조팀은 완벽한 공사 수행의 일등 공신이다. 이들은 발판(Plate)이나 지지대(Brace) 등을 용접해 서로 다른 블록들을 연결하고, 블록의 크기와 중량 등을 측정해 실제 도면과 일치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40여개가 넘는 블록들을 정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구조팀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 있었다.

구조팀원들은 블록을 조립하기 일주일 전부터 설계도면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을 미리 마련했다. 또한 선행 공정인 해양대형조립공장을 찾아 블록을 살피고, 실제 도면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 유별날 정도로 꼼꼼한 이들의 작업 습관이 고품질의 제품과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구조팀은 지난 한 해 동안 초음파 품질검사(Ultrasonic Testing)에서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또한 이러한 작업 습관은 작업장의 안전을 높이는 효과도 불러와, 지난 3월말에는 무재해 3천300일을 돌파하기도 했다.

해양플랜트 '선적 전담팀' 위촉

구조팀의 실력은 이미 사업본부 내에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이들은 다수의 해양플랜트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난해 6월부터는 해양사업부문의 공식적인 '선적(船積/Load-out) 전담팀'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수천 톤에 달하는 해양 설비를 운반선 위로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설비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ASTA HANSTEEN TOPSIDE 공사부 구조팀은 해양사업부문의 10여개 구조팀 가운데 이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는 박명일 사수(40세)의 공이 컸다. 박명일 사수는 육상 선박 건조 등 수많은 선적작업에 참여하며 자타공인 현대중공업 최고의 '해양플랜트 선적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팀원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고, 그 이상을 꿈꾸며

구조팀 팀원들은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나서고 있다.

팀 막내인 노경현 사우(25세)를 비롯해 이형구 사우(30세), 권혁진 사우(33세), 공이훈 사우(37세) 등 젊은 사우들은 퇴근 후 3시간씩 용접 실습장에서 아크용접과 CO₂용접 등 복합용접 연습에 매달린다.

올해 퇴직을 앞둔 이상화 기원(60세)은 이들의 든든한 조력자다. “마지막 근무하는 날까지 후배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들과 함께 남아 연습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부서와 회사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실력을 갈고 닦고 있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최고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조팀 사우들은 현장의 개선활동에도 앞장선다.

항상 현장을 관찰하며 매달 꾸준한 아이디어를 내는 한용연 사우(37세)는 구조팀의 ‘개선왕’이다. 그의 아이디어는 실제로 현장 곳곳에 녹아들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한용연 사우가 고안한 자재운반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작업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고 한다.

팀장 최인규 기원(43세) 역시 입사 이후 16년간 특허 1건과 실용실안 2건을 출원하는 등 해양사업부문을 대표하는 현장 전문가다. 아스타 한스틴 상부설비는 시운전을 마치고 오는 8월 노르웨이 해상에 설치될 예정이다.

최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이 설비가 미지의 해상을 탐사하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길 꿈꿔 본다.

세계 최대 원통형 구조물, 그 감격스러운 출항을 지켜보며

4월 21일, 지난 3년간 수백 번, 수천 번을 오르내리며 수많은 위기와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던 아스타 한스틴(AASTA HANSTEEN) SPAR 설비가 출항한 날이다. SPAR 설비는 지름 50미터, 길이 100미터에 이르는 원통형 하드탱크와 가로 50미터, 세로 50미터, 길이 10미터의 사각 소프트 탱크를 연결한 구조물로, 중량이 46,675톤이나 되는 세계 최대 원통형 구조물이다.



SPAR 설비의 제작 과정과 웅장한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수많은 어려움 이겨냈던 날들

반잠수식 바지선인 DBU(Double Barge Unit) 위에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는 SPAR 설비의 모습이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현장의 직원들과 함께 했던 3년 남짓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SPAR 설비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사 초기에는 골리앗FPSO 모듈을 비롯해 수많은 공사들이 해양야드를 가득 채우고 있어 PE장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육상 건조 방식을 포기하고, 도크 안에 바지선을 놓고 그 위에서 블록을 탑재하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했다. 이는 육상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초기 계획보다 공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발주처의 까다로운 요구도 작업을 계속 지연되게 했다. 도장 작업이 가장 고비였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공정이 심각하게 늦어졌고, 100여개의 블록들은 해양야드 구석에서 작업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았다. 설계단계에서 원형 구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블록 탑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블록을 회전시켜가며 작업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간섭이 발생했고, 공정을 맞추기 위해 결국 선행의장품의 조립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블록을 탑재했다. 블록을 모두 탑재한 후 의장작업을 하려고 하니 만만치가 않았다. 빼곡히 쌓여 있는 족장들 사이로 의장품을 설치하기가 어찌나 어려웠던지,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깜깜해진다.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의 족장을 해체하고 의장작업을 한 뒤 다시 설치하는 이중작업을 했다.



이처럼 후행 의장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선행 도장된 블록에 손상이 생겨 수많은 도장 인력들이 다시 투입돼 전체 공정이 지연되는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했다.



육상에서 제작한 메가블록을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탑재하는 모습

발주처와 적극 소통·혁신적인 공법 개선 나서

하지만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는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차근차근 극복해 나갔다. 특히 불필요한 오해 등으로 인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했고, 우리 작업장에서 할 수 없는 난해하고 어려운 작업은 전문 외주화를 통해 해결했다.

작업자들의 기지로 어려움을 이겨낸 순간들도 있었다. 블록 조립을 바지선 위에서 하다 보니, 지게차, 하이드رو 크레인 같은 필수 장비들을 활용할 수 없어 작업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를 극복하고자 바지선 위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블록 탑재 후 용접할 공간이 부족해졌을 때는 원통 바깥쪽으로 폭 5미터, 길이 100미터의 임시작업대를 설치해 통행로를 확보했다.

공법 개선의 효과도 톡톡히 봤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노르웨이 해양산업 표준(NORSOK) 규정에 맞추느라 블록 조립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고심 끝에 육상에서 2천~6천톤에 이르는 5개의 거대한 메가블록(MEGA BLOCK)을 제작해 설비에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수천톤에 이르는 블록을 정확한 위치에 탑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복합공정도 사고 없이

복잡한 설비를 제작하다 보니 늘 고민이던 것이 안전이다. 특히 복잡한 상하 복합공정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담당자들이 모여 전체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위험 구역 등 공유가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안전하게 동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설비 가운데 설치한 벽과 트렁크 등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연구소에 문제를 의뢰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하

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문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이밖에도 56개의 탱크마다 사람을 배치해 출입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시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 혹시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탱크 내부에서 실시

되는 어떤 작업이라도 사전 작업환경 점검이 없는 일을 시작할 수 없었고, 중복작업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썼다.

치열한 노력의 결과 큰 사고 없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마음, 한뜻, 한 방향으로

이번 공사는 선주뿐 아니라 프랑스 테크닙(Technip)이라는 엔지니어링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과 스케줄 등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선주사와 설계사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눴고, 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쉽지 않은 공사였지만, 작업자들과 감독관들, 발주처 등 공사에 참여한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한 방향으로’ 뭉친 결과 성공적으로 설비를 고객의 품에 인도할 수 있었다.

모든 작업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 나갔던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데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진다면, 이번 공사에서 배운 것들을 밑거름 삼아 더욱 안전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글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박진철 상무보



아스타 한스틴 SPAR 설비 출항식

단단한 팀워크로 선박의 뼈대를 쌓다

현대미포조선 구조설계부는 선박의 핵심이 되는 선체중량 추정 업무 및 각종 구조 해석, 선급 규정 계산 등을 완벽히 수행해 선박의 뼈대인 '구조'를 설계하는 부서다. '작지만 강한 구조'라 불리는 이 부서는 현대미포조선 설계부서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인 20명이 근무하지만, 끈끈한 동료애와 팀워크로 한 치의 빈틈없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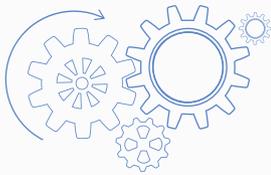
부서장 배민권 부장

부서장 한마디

우리 부서는 선박의 구조설계, 선체 견적, 각종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며 2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설계의 결과에 따라 선박 중량의 60~70%를 차지하는 선각 중량이 결정되는 만큼 부서원 모두가 최적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가볍지만 튼튼하고 안전한 선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경청, 배려, 소통, 능동'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작지만 강한 구조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보다 '팀워크'를 업무 수행의 기본 자세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다움, 아빠다움, 나다움' 등 각자의 '다움'을 목표로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부서원 개개인의 역량 계발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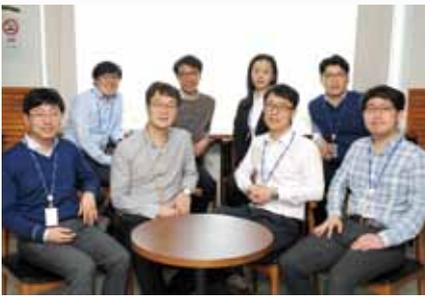
부서원 평균나이 37.5세!

평균 10년 이상의 구조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륜과, 30대 청년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시에 발휘함으로써, 모든 선박에 최적의 구조설계를 완수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뼈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개

구조 1과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벌크선, LPG/LEG 등 가스운반선, 로팍스(Ro-Pax) 등의 설계와 견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조 2과



PCTC/RO-RO 등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운반선, LNG선, 기타 선종의 설계와 외부기관(선급, POSCO 등)과의 공동연구/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10-10’으로 경쟁력 찾는다!

구조설계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국·일본 조선소와의 수주 경쟁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우리가 만든다”는 일념으로 기본계획/구조설계 담당임원(민덕기 상무)과 함께 자체적으로 ‘10-10-10’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10%, 업무능력 향상 10%, 선박성능 향상 10%를 목표로 하는 ‘10-10-10’활동은, 2016년에 실시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Brain Storming’에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전년도에 도출했던 많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모든 업무를 제로베이스의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구조설계부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기대됩니다.

우리 부서 자랑거리

구조설계부 작은 도서관

올해부터 저희는 부서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기계발서, 역사, 음악 등 20여권의 도서를 구비해 부서원들이 한 달에 한 권씩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신입사원인 최진호 사원이 도서관장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특이한데요, 신입사원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다 보니 선배들이 오히려 후배 눈치를 보며 더욱 열심히 참여한다고 합니다.

요즘 구조설계부 회식 자리에 가면 회사 이야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통 관심사인 책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음주를 하게 된다는 건 도서관 운영의 함정일까요?



문화체육행사로 더욱 풍성한 회식

올해부터 구조설계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지는 부서 회식을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함께하는 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부서원들이 가능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선정해 문화체육의 날을 운영하는데, 1월에는 배구관람, 2월에는 당구대회, 3월에는 연극관람, 4월에는 볼링대회를 개최하여 부서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영화, 전시회, 야구/축구 경기 관람, 스크린 골프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서원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통합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그룹이 맞이할 변화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미래를 말한다'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달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디지털이 가져온 변화, 새로운 산업시대 열린다!

혁명적 변화가 시작된다!

최근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화두다. 이는 말 그대로 산업에 네 번째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동안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겪어 왔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기계혁명이고, 2차는 전기와 석유화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혁명이었으며, 3차는 컴퓨터와 인

지난 2015년,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2020년 전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세기 굴목 산업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로서 많은 기업들이 본받고 싶은 회사로 자리매김한 GE가

기존의 모든 성공방정식을 깨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한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한 발표 이후 GE는 전략적, 조직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꾀하며 전통적인 제조업의 시스템을 버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지멘스의 독일 암백공장. 이곳은 제품 생산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근본적인 생산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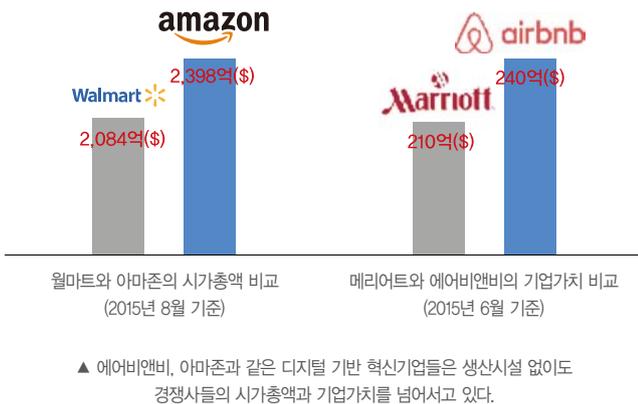
터넷의 발전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혁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지능'과 '초연결'이다. 인공지능, 로봇 등과 같이 인간의 평범한 지능을 훨씬 뛰어 넘는 '초지능'적 기술이 탄생하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기반 혁신기업들은 공장 등 생산시설이 없이도 경쟁사들의 시가 총액과 기업 가치를 넘어서면서 산업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인류 생활의 총체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관점에서 조직, 프로세스, 사업 모델 등의 근본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진화 중'

디지털, ICT(정보통신기술), 첨단 등의 단어로 대표되는 이러한 변화는 언뜻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제조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해 상용화하고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GE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이 제작되고 폐기되는 모든 기간 동안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큰 성과를 거둬 2014년 GE의 서비스 매출은 53조로, 전체 매출의 31%에 달했다.

또한 항공엔진을 만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정수기와 같이 장기 렌탈(Rental) 계약을 맺어 유지보수 관리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복사기 업체 등이 사용하던 'Pay Per Use(엔진을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은 제품 자체보다 고객과의 연결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시장이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멘스(Siemens)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데, 독일 암베르크(Amberg) 공장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생산성(자동화율 75%)과 품질(불량률 11.5ppm)을 극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한 개 라인에서 최대 100가지 종류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다품종 생산체계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근본적인 생산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이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ICT기획팀을 신설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최고 디지털 책임자(CDO)를 영입하며 디지털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느 한 개인, 또는 부서가 변한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영업부터 설계, 생산, 개발, 연구, A/S까지 모든 조직이 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달라진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모든 임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은 절실한 이유다.

글 현대중공업 ICT기획팀

(다음 호에 계속)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27일 최고 디지털 책임자(CDO)를 영입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사보편집실에서는 현대중공업 CDO 김태환 전무를 만나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품에 ICT 융합해 디지털 혁명 앞장서는 기업으로”

CDO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CDO란 무엇이고 앞으로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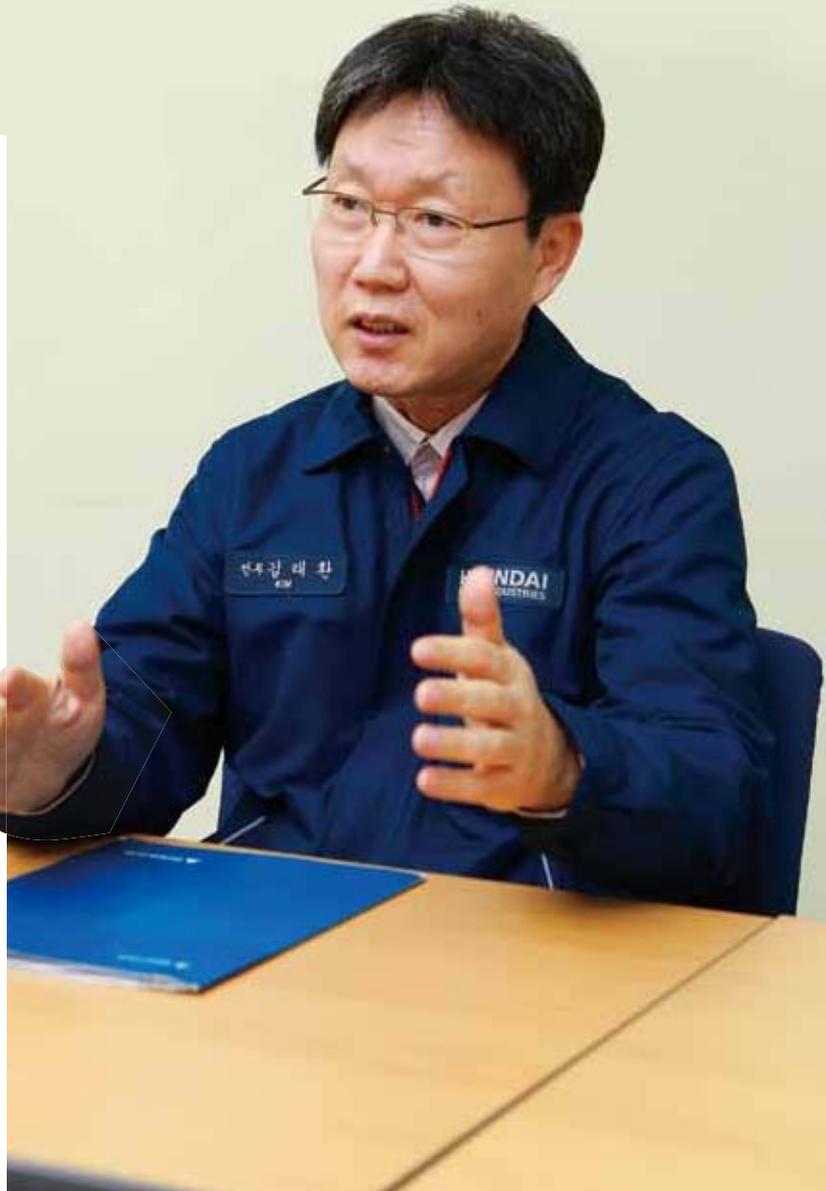
“CDO란 ‘최고 디지털 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를 말합니다. 저는 그 이름대로 앞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디지털화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간혹 CDO를 ‘최고 파괴 책임자(Chief Destruction Officer 또는 Chief Destroy Officer)’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기존의 틀을 모두 깨는 ‘파괴적 사고’로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가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해나갈 일 역시 ‘전통 제조업 기업’이라는 기존의 정체성을 모두 ‘파괴’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종합 솔루션(Solution)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가 화두인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4차 산업혁명이란 쉽게 말해 모든 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해 디지털화 하는 것입니다.



IoT(사물인터넷)와 CPS(사이버-물리시스템)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계, 설비, 부품, 제품 등은 물론이고, 사람의 움직임까지 전 영역에 ICT 바람을 불러일으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제품 개발 기간, 납품 기간 등을 단축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안전 관리, 에너지 관리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와 ICT융합, 인공지능 등을 통해 사람이 없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편하고 여유 있게 일을 하면서도 생산성은 5배, 10배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디지털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시나요?

“현대중공업그룹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년 전부터 사무실을 비롯해 생산 현장에 다양한 ICT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문별로는 그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지만,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들을 서로 잘 융합해 전체 프로세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현대중공업그룹은 ‘스마트 솔루션 프로바이더(Smart Solution Provider)’를 목표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선박 경제운항 솔루션, 제품 수명주기 관리 솔루션 등 각종 솔루션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만드는 다양한 제품에 어떻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킬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박, 엔진, 전력기기, 건설장비 등의 제품과 함께 다양한 솔루션을 판매하는 것이 미래에는 주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솔루션 자체만을 단독으로 판매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3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현장의 작은 부분부터 바뀌어나가며 작은 성공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들이 확산되면 임직원들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연스레 회사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회사와 변화의 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며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준비를 시작한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은 같은 출발선상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커다란 하얀 도화지 위에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모습을 그리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모든 사우들이 함께 노력했을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변화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 연필을 들고 아주 연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많이 공부하고 배우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전무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재직 당시 ‘스마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총괄전무로 제조 전 공정에 디지털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정곤 대리의 도전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의 선행은 계속된다!

'착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것이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행을 한다"는 이정곤 대리(33세/현대미포조선 HM-POPS 추진팀)의 도전을 소개한다.

1 DAY

시작은 쉽게, 화장실 휴지 줍기!

화장실에 갔는데 쓰레기통 주변에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애써 외면하고 나갔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첫 번째 착한 일을 할 절호의 기회니까요. 하나하나 모두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첫 임무를 완수해 뿌듯했지만 너무 쉬운 일이었기에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차례 기회를 노리다 퇴근 전까지 다른 화장실에서 두 번 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 DAY

이중 주차된 차 같이 밀기

회사 주차장은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안쪽에 있는 차를 빼기 위해선 앞을 가로막은 차를 밀어야 하는데, 바닥이 미끄러운 곳은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 애를 먹곤 합니다. 퇴근 후 주차장에 갔더니 마침 한 분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하루 종일 궁리했는데 드디어 찬스!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차를 밀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3 DAY

엘리베이터 청소

퇴근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바닥에서 악취가 나고 끈적였습니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다가 바닥에 물이 줄줄 샌 모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을 다른 주민들을 위해 집에서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청소를 하는 도중 다른 사람이 타게 되어 좀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제가 대신한 것이니까요.





4 DAY

유니세프 기부

'자원봉사자의 어리석음'은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로 직접 현장에 가는 것만이 봉사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서툰 솜씨로 연탄 몇 장 나르는 것 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서 번 돈을 기부하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큰 도움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만원 남짓으로 시작한 금액이 지금까지 200만원이 다되어 가는 걸 보며 '작은 일도 쌓이면 얼마든지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5 DAY

식당에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점심시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회사 식당에는 바닥에 휴지나 음식물들이 자주 떨어집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일일이 허리를 숙여 치우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는데, 오늘은 저도 쓰레기 줍기에 손 하나를 보탰습니다.



6 DAY

출입구 바닥에 주의 표시 요청

2현사 1층 계단 출입구 바닥에는 턱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 '살며시' 있다 보니 처음 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주 다니는 사람도 발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색깔이라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면 주의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총무부 시설관리반에 수리 의뢰를 했습니다.

"사우 여러분, 2현사 계단 올라가실 때 조심하세요!"



7 DAY

주말엔 내가 '요리사'

직장인들은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쉬지만 가정주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에 지친 아내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주고 싶어 오늘은 제가 '일일 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육아에 집안일까지 하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보, 오늘은 꼭 쉬세요"



도전을 마치며

지난 일주일간 소소하지만 꾸준히 선행을 했습니다. 행동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이로움'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달의 도전'은 끝이 났지만 아름다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저의 선행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오정환 기원이 차순구 기원에게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평소 말하지 못했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작은 선물과 함께 배달하는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동료, 가족,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 있는 사우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배려가 지켜준 모두의 안전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로 36년째 선박 의장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환 기원(60세/현대중공업 의장2부)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고마운 사람이 있다.

늘 동료들을 배려하며 작업장의 안전을 지켜주는 차순구 기원(57세/현대중공업 조선안전부)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여는 사람

“정년을 앞두고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36년간 배 안에서 일하며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의장2부에 근무하는 오정환 기원은 오랜 시간 고마움을 간직해온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오정환 기원은 LPG선의 의장작업을 담당했다. 당시 크고 작은 안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동료들의 안전이 걱정이던 오정환 기원은 그곳에서 차순구 기원을 처음 만났다.

오정환 기원은 선박의 안전 담당자였던 차순구 기원이 늘 웃는 얼굴로 현장의 작업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오정환 기원은 “안전 담당자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주니 업무에 신이 나기 시작했다”고 첫 만남을 회상했다.

작업 현장에 가장 먼저 출근해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 역시 차순구 기원이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작은 부품이나 전선줄 하나까지 철저히 점검하며 정리했으며,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손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사우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했다.

차순구 기원은 사우들을 위한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매일 아침 실시하는 TBM 시간에 파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작업자들의 마음을 다잡아주었고, 종종 한 손 가득 음료수를 사들고 밝은 미소로 작업자들을 찾아와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하기도 했다.

오정환 기원을 감동시킨 또 다른 사건은 바로 ‘흡연구역 설치’였다. 추위 속에서 일하는 흡연자들이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울 곳이 없어 힘들어 하자, 차순구 기원은 선주 및 안전 담당자들과 협의해 안전한 장소를 물색하고, 그곳에 현장 사우들을 위한 간이 흡연구역을 설치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흡연구역을 둘러 바닥에 떨어진 궤초를 줍고, 재떨이를 비워주는 등 섬세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후배들의 안전도 부탁드립니다”

차순구 기원의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은 작업자들이 안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안전에 신경을 쓰다보면 공정이 늦어지고 귀찮기만 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고를 예방해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올해로 정년을 맞는 오정환 기원은 “차순구 기원 같은 안전 관리

“
늘 웃는 얼굴로
작업장 곳곳을 챙기는
따뜻한 배려에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



자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건강하게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차순구 기원 역시 오정환 기원의 안녕을 기원하며, “안전에는 ‘내일 네 일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사우들과 함께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우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안전을 지켜준 차순구 기원과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용기내어 감사함을 전달한 오정환 기원의 마음이 현장 곳곳에 따뜻함을 전하는 행복한 봄날이 되길 기대한다.



차별화된 품질 확보로 고객 신뢰 회복에 사활 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고품질의 제품'에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비전 2021을 선포하며, '기술-품질 중심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과 품질을 모든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글로벌 리더로 재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품질 향상 위한 노력 박차

현대중공업은 품질 수준을 높여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로 삼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는 품질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낭비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품질 실패비용'을 산출해 우리의 품질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사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품질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외 협력회사의 중대 품질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회사가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용 회수(Back Charge)를 비롯해 거래 정지, 견적 제한, 물량 조정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밖에도 전사품질경영시스템(HI-QMS) 구축을 통해 품질실패비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하고, 예방품질제도와 품질완성책임제 등을 확대 시행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품

질실패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서협력회사의 책임 강화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의 품질 관리가 '과정'보다는 품질실패비용과 같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올해부터 '품질실패비용 부서별 책임제'와 '사내품질감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생하는 품질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 재발을 막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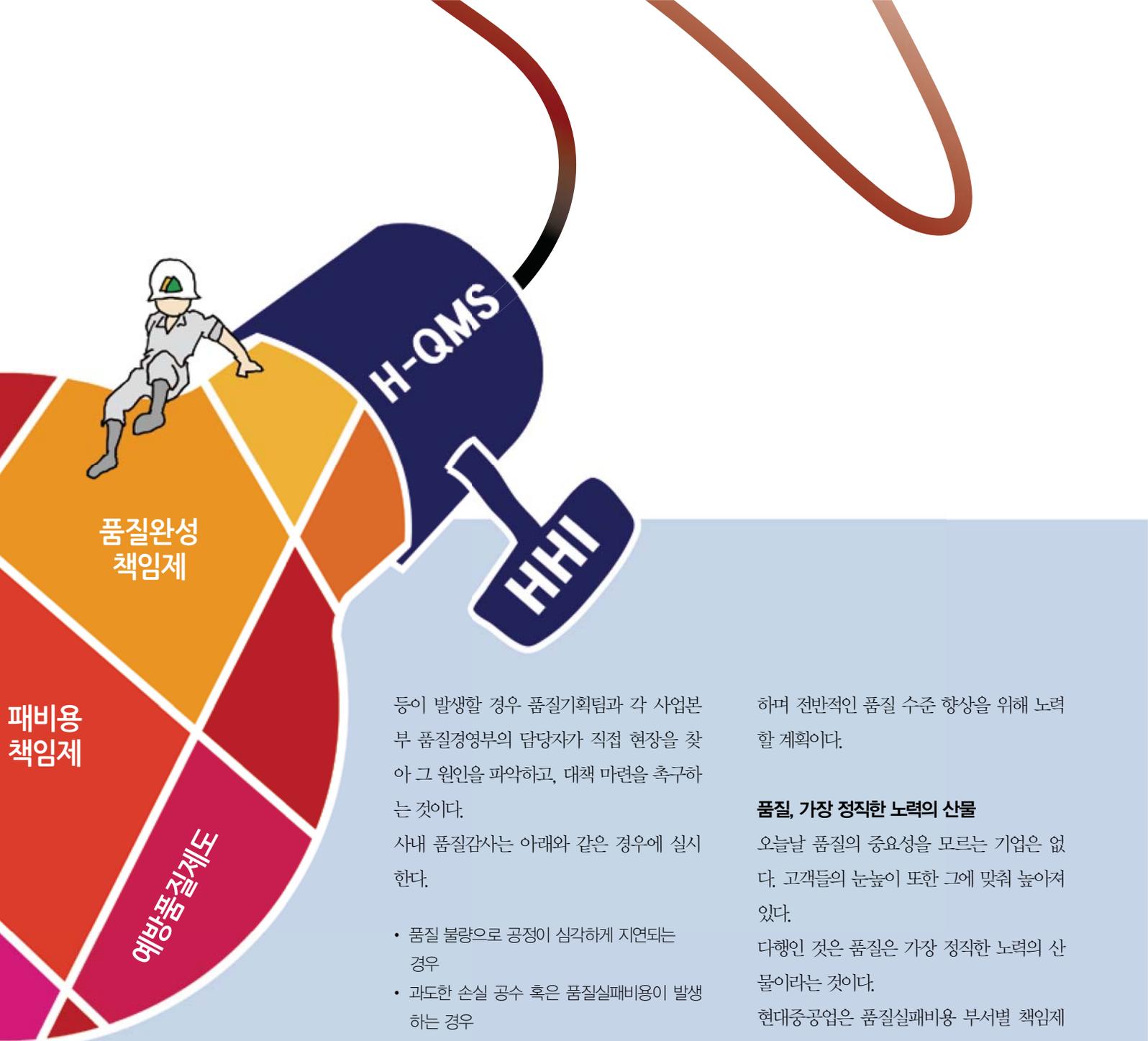
'품질 실패비용 부서별 책임제'는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부서별로 귀책의 정도를 면밀히 따지고, 이를 부서별 실적과 연계해 관리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분기별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관리해 각 부서별로 품질실패비용 절감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함께 기존에 사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품질감사제도의 범위를 사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 부서 및 사내 협력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중대 품질문제



품질감사는
업무에 대한 감시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 목적이다.



품질완성
책임제

패비용
책임제

예방품질제도

등이 발생할 경우 품질기획팀과 각 사업본부 품질경영부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사내 품질감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 품질 불량으로 공정이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
- 과도한 손실 공수 혹은 품질실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특정 품질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품질 불량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 기타 사업본부와 협의 하에 품질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품질감사는 업무에 대한 감시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품질기획팀은 철저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구실이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며 전반적인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품질, 가장 정직한 노력의 산물

오늘날 품질의 중요성을 모르는 기업은 없다. 고객들의 눈높이 또한 그에 맞춰 높아져 있다.

다행인 것은 품질은 가장 정직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품질실패비용 부서별 책임제와 사내 품질감사제도가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이 맡은 작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확실한 방법은 완벽한 품질로 차별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품질 제도의 시행이 품질완성의 문화를 전사로 퍼뜨려 모든 임직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글 현대중공업 품질기획팀



‘최고의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로 승부하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주)유일은 선박 블록 및 플랜트 설비를 제조하는 회사다. ‘불량률 제로화, 고객만족 실현, 품질 향상’을 목표로 500명의 임직원들은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 자랑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 산단에 위치한 (주)유일의 유인숙 대표는 남성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조선업계에서 흔치 않은 여성 CEO로, 2001년 (주)유일정공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주)유일은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등에 들어가는 선박 블록과 대형 철의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다. 특히 주 생산 품목인 T-BHD(Trans Bulkhead)블록은 컨테이너선의 화물창을 나누는 격벽으로, 외부의 힘을 견디는 선체의 뼈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외관상 아름답다해도 이 블록이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T-BHD 블록 제작에는 견고한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주)유일은 업계 사이에선 독보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관리로 입소문이 나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T-BHD 블록 외주 물량의 대부분을 (주)유일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가공부터 조립, 선형의장, 선형도장, 전장 설치 등 탑재 직전까지의 전 공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조선소 야드와 도크장의 공기 단축 및 공법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찬란한 도약을 꿈꾸다!

(주)유일은 2001년 현대삼호중공업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T-BHD 제작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현대미포조선, 2005년에는 현대중공업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2013년에 현대삼호중공업 최우수 협력회사로, 2015년에는 현대중공업 우수 협력사로 이름을 올리며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현재도 평블록(T-BHD, L/TBHD), 곡블록(선수, 선미, Side Shell 등), 대형철의장품(Cell Guide) 등의 제품을 제작·납품하며 15여년째 현대중공업그룹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영위하고 있다.

(주)유일은 전문 인력이 고루 갖춰져야 튼튼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의 꾸준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있다.

매주 하루, 비즈니스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임직원들이 함께 토론을 나누는 등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최근 어려운 조선업 경기 속에서도 (주)유일은 기업부설연구소의 R&D투자를 확대하고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

또한 선박 블록을 제작해온 노하우를 살려 소형 선박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를 실현하면서 장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체 경쟁력을 보유해 나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임직원과 협력회사



와 상생하며 목표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주)유일.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그들은 국내외 조선소들로부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인숙 대표는 “열정과 창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고객중심, 품질우선, 기술혁신이라는 가치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고객사에 신뢰와 만족을 주면서 협력업체와 종업원의 밝은 미래를 비춰주는 강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끈기 있는 노력으로 한국 조선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주)유일의 눈부신 앞날을 기대해 보자.



노사 손잡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 펼쳐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5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 현대중공업 노사 장기기증 서약식



▲ 현대비나신조선 생산사무동 준공



▲ LNG선 공사에 들어간 현대삼호중공업 야드 모습



▲ 현대중공업이 1997년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병대 캠프

2007.5

현대중공업 2007년 5월호 사보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장기기증운동을 펼친다는 소식이 게재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창사 35주년을 맞아 이해 3월 선포한 '노사공동선언'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기증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노조 집행부와 회사 경영진이 앞장서서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또 이달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구 본관 철거 소식도 실렸다. 현대중공업은 본관 신축을 위해 1972년 준공돼 35년 동안 회사와 함께 해온 구 본관을 2007년 4월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현대미포조선의 베트남 법인인 현대비나신조선소(HVS)에서는 이달 4층 규모의 생산사무동을 준공했다. 특히 이 건물 1층에는 약 800석 규모의 제 3식당이 조성되어, 그동안 먼 거리를 이동해 식사를 해야 했던 직원들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됐다. 2층에는 선체부 및 지원부서가 입주했으며, 3층에는 도크마스터, 기관부, 전장부 등이, 그리고 4층에는 4인씩 축조공사로 불편을 겪던 마킹 숍(Marking Shop)이 이전돼 더욱 원활한 생산 활동이 가능해졌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07년 5월 영국 BP사가 발주한 LNG선인 S297호선의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5월 7일 개최된 S297호선의 용골거치식에는 선주 감독관과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박의 성공 건조를 기원했다.

또한 이달 현대삼호중공업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사들로부터 총 3척의 LNG선을 수주하기도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그후로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난 3월에는 세계 최초로 LNG연료 추진 친환경 대형 유조선 수주하기도 했다.

1997.5

1997년 5월호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해병대 교육 소식이 게재됐다. 현대중공업은 1997년 4월부터 과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1박2일간 해병대에서 정신재무장 교육을 실시했다.

사보에는 교육에 참가했던 사우들의 소감을 전했는데, 많은 사우들이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까워했다고.

1997년 5월 현대미포조선은 신조선 사업을 위해 선각공장과 도장공장을 완공했다.

선각공장은 약 6천평의 대지 위에 A, B, C 공장이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으로 건설됐으며, 100톤 천장크레인 3대를 비롯해 총 21대의 크레인과 80톤 및 20톤 대차가 설치됐다.

또 도장공장은 약 1천300평의 부지 위에 블라스팅 공장과 페인팅 공장 3동을 일체화시켜 건설비 및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하루에 최소 2개의 블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1987년 5월 사보는 현대중공업이 국내 조선업체 중 처음으로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A.P.몰러-머스크(Moller-Maersk)사로부터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이해 4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A.P.몰러-머스크사와 25만3천톤급 초대형 유조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계 최대 해운사와의 계약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정상급 조선소로 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현대중공업은 이후로도 머스크사에 다양한 선종의 선박을 인도하며 돈독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1987년 5월 현대미포조선 사보에는 사내 부서 및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됐다는 소식이 실렸다.

5월 30일에 치러진 '87 건강달리기 대회'에는 손명원 사장을 비롯해 35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해 사내 후문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현대자동차 선착장까지 약 6km의 거리를 달렸다고 한다.

또 족구, 배구, 축구, 줄다리기, 탁구 등 5개 종목에 걸쳐 4월부터 실시된 '제 3회 사장배쟁탈 체육대회'의 결승전도 건강달리기 행사에 이어 임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장이 됐다.

1977년 5월 현대중공업 사보 1면에는 합동결혼식 소식이 실렸다. 현대중공업은 1977년 4월 사내 체육관에서 직원 66쌍을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당시만 해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았는데, 현대중공업은 이런 직원들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고, 비용 일체를 부담했다.

제 1회 합동결혼식은 1만여 하객의 축하 속에 김영주 사장의 주례와 회사 밴드부의 연주 및 회사 합창단의 축하 등으로 진행됐다. 현대중공업은 1977년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사내 체육관에서 정기적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 현대미포조선 선각공장

1987.5



▲ A.P.몰러-머스크사로부터 선박을 수주한 내용이 실린 현대중공업 사보



▲ 현대미포조선 '87 건강달리기 대회 모습

1977.5



▲ 현대중공업 합동결혼식

쓰러지는 볼링핀들과 함께 스트레스도 안녕~

바쁜 하루가 끝난 퇴근 길, 고단했던 하루에 작은 쉼표를 찍고 싶은 시간.
동료들과 한 잔 걸치기도 마땅치 않을 때,
무엇을 할까 고민인 사우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주목해 보자.
레일을 내리 찍는 '팡'하는 소리와 함께
하루 종일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던 피곤함을 날려버리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누구든 즐길 수 있는 운동

현대중공업 볼링동호회 'HIT(Hyundai Impact bowling Team)' 회원들이 쑥쑥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정기전이 펼쳐지는 날이다.

이들의 경기에는 어떤 스트레스도 없다. 10여명의 회원들은 대회에서 수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못한다고 눈총을 주는 사람도 없이 즐겁게 운동에 몰입하며 오롯이 이 시간을 즐긴다.

보통 월 2회, 수요일 6시 동울산볼링장에서 정기전이 펼쳐진다. 이 같은 정기모임 외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볼링장에 가는 '번개 모임도 종종 있다.

HIT 회원들은 "볼링은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취미"라고 말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부담 없는'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볼링은 초보부터 고수까지 실력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경기 중 하나다.

축구나 농구처럼 공을 따로 준비해야 할 필요도 없고, 볼링장 내 마련된 공을 들 수 있는 튼튼한 팔과 열 발자국 정도 내디딜 수 있는 두 다리만 있으면 된다. 볼링화와 볼링 장갑 등 관련 용품도 볼링장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HIT에는 볼링의 매력에 막 빠지기 시작한 회원부터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는 회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취미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경기가 시작되면 여기저기 웃음소리와 함께 명쾌한 볼링핀 소리가 여기저기 울린다. '팡'하고 볼링공이 레일을 내리치는 소리와 쓰러지는 볼링 핀들에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

볼링핀이 쓰러지면 저마다 개성 넘치는 세리모니를 선보이고, 스코어 테이블 위에서 같은 팀원끼리 '하이파이브'를 함께 하다 보면 동료애도 쑥쑥 자란다.





가입 및 문의 : 안상현 대리(010-2941-0775)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동료애도 쑥쑥

심현경 사우(34세, 우신기업㈜)는 “HIT 볼링회는 젊은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곳”이라고 동호회 자랑을 늘어놓는다. 회원들 대부분이 30~40대로 비슷한 연령대가 운동 후에는 가볍게 맥주를 한잔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정다운 분위기가 자주 연출된다고 한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던 이석영 사우(36세, 현대중공업 AASTA HANSTEEN TOPSIDE 공사부)가 “퇴근 후 동호회 활동을 하는 날이면 그날 하루가 즐겁다”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다 보니 생활에 활력도 생긴다”고 덧붙인다.

각 부서와 팀 안의 업무에 갇혀 일하다 보면 국한된 환경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하고만 소통을 하게 되는데,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른 회사, 부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친분을 쌓다보면 유대감이 생기고, 애사심도 높아진다고 한다.

회장을 맡고 있는 안상현 대리(37세, 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설계부)는 “여가 생활을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누구든 부담 없이 찾아주기를 바란다”며, “직장인들의 희로애락을 공유할 수 있는 소탈한 동호회”라고 HIT를 소개했다.

수 없이 공을 던지지만 스트라이크는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다. 또 누구나 의도치 않게 스페어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시가 남듯 핀들이 설 때가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탁 걸리는 느낌이 오면서 핀이 ‘뿡’하고 쓰러진다. 말로는 표현 못할 희열이 느껴진다. 그래서 볼링은 우리네 인생과도 닮았다. 그 좋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오기 때문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사우들이 있다면 운동과 사람, 그리고 인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HIT의 문을 두드려 보자.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기다림’과 ‘발품’으로 담아낸 명산(名山)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과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다를까?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액자 속에 담긴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사진작가 남광진 씨(70세)의 전시회를 찾았다.



남광진 사진작가

개인전 「풍경이야기III」 일정

- 5/4일 ~ 10일 경주 더케이호텔 전시관
- 5/12일 ~ 18일 전주 덕진공원 갤러리
- 5/19일 ~ 25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제1전시관
- 6/19일 ~ 7/8일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남광진 작가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명산을 돌며 담아낸 사진 가운데 120여점을 엄선해 최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장에서 만난 남광진 작가는 행복한 표정으로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수상작인 「지리산 뱀사골 수달래」라는 작품을 가리키며 “다시는 찍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물이 많지 않은 계곡에 봄비가 오는 것을

보고 새벽녘에 갔더니, 물안개와 함께 옆에 흐드러지게 핀 수달래(물가에 피는 철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카메라에 담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태풍으로 이곳의 수달래가 사라지고 주변 풍경도 달라져 이제 다시는 찍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고령에도 산 속 누비며 카메라에 풍경 담아

남광진 작가는 수십 년 동안 산을 전문적으로 찍어온 사진작가다.

그가 사진에 폭 빠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



경부터였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 찍기가 흑백사진, 칼라사진, 슬라이드 사진, 디지털 사진까지 이어지며 어느덧 그를 사진 전문가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산악사진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처음에는 소재를 구분하지 않고 인물, 풍경 등 다양한 피사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산을 좋아하고 풍경사진에 더 애착이 가서 지금은 전국의 명산을 찾아 다니고 있다고 한다.

산악사진은 '기다림의 미학'

산악사진은 젊은 사람들도 찍기가 어렵다. 장시간 무거운 촬영장비를 메고 비경이 있는 곳을 찾아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체력적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남 작가는 일생 동안 한 번 볼까 말까 한 산의 모습을 봤을 때 맛볼 수 있는 쾌감과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서 누리는 여유가 좋아 이런 고생스러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는 "멋진 산악사진이 나오려면 높은 곳에 가야하고, 또 절경은 악천후가 지나간 다음 나타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개의치 않고 산을 찾는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들의 발자국이 풍경을 망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에 밤새 촬영 포인트를 지키고 있다가 이른 아침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몇몇 작품은 2~3주간 산에 머물며 기다린 끝에 겨우 찍을 정도로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산악사진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아들 남수연 기원(좌)과 함께

아버지 열정 계속해 응원할 것

남광진 작가가 이렇게 사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이해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사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카메라가 망가졌을 때, 낙심한 그에게 아내는 집값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선뜻 내어주며 카메라를 사주었다.

지금도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적극 돕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남 남수연 기원(45세,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은 "고령에도 힘들게 산을 타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하시는 일에 매진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아버지의 열정을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산악 사진을 찍을 계획"이라는 남 작가를 보면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며, 열정 가득한 삶이야말로 그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광진 작가의 이번 전시회는 울산 남구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경주, 전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의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면 「풍경이야기Ⅱ」 사진전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취재 교수진 현대미포조선 주부리porter

‘돌미역’ 바닷바람을 품어야 제 맛

울산 12경 중 하나인 주전 해안길은 매일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데,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3월이 오면 훨씬 짙어진 바다 냄새로 발길을 잡는다.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자연산 돌미역의 생산지답게, 3월부터 수확을 시작한 미역을 발 위에 올려놓고 건조하는 모습이 해안길 곳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해안 길 따라 길게 줄지어 서서 새까만 미역을 말리는 이 진귀한 모습은 자연산 돌미역의 수확시기인 5월까지 계속된다.

해녀들의 정성 가득 담긴 ‘돌미역’

주전 미역은 포자(胞子)를 줄 위에 달아 바다 속에서 양식하는 미역과 바위 일대에 저절로 포자가 붙어 자란 자연산 돌미역으로 나뉜다. 수확하는 미역의 대부분은 해녀가 직접 채취한 자연산 돌미역이다.

자연산 돌미역의 수확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주전동 해녀회인 나잠회에 소속된 해녀는 100여명. 해마다 9월이 되면 주전동 일대가 들쭉이는데, 해녀들이 한 해 동안 미역을 가꿀 ‘바위 뽑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바다 속 바위는 개인 소유지가 아니기 마음대로 생물을 채취하지 못한다. 하지만 추첨을 통해 바위를 배당받으면 1년 동안 개인 소유지로 인정을 받아 거기서 자라는 미역을 마음껏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자리 좋고 기름진 텃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 해 미역 농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상 미역 수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0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는 물이 끼가 두껍게 앉은 바다 속의 바위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해녀들은 두 달 동안 파도가 세지 않은 좋은 날마다 바위를 닦기 위해 잠수를 하며 공을 들인다. 이는 바다 속을 떠다니는 미역 포자가 바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밑 작업인데, 이듬해 수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주전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교차지점이어서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친 파도가 미역의 탄력을 높게 만들어 미역 성장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덕분에 주전 돌미역은 다른 지역의 미역보다 쫄깃쫄깃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고 있으며, 특유의 미역향도 느낄 수 있다.

거기에 어촌이 생긴 이래 200여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온 옛 건조 방식이 더해져 돌미역의 맛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맛의 비결 '해풍(海風)'에 있어

흔히 미역을 잘 말리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전 미역의 맛을 지키는 진짜 비법은 바람에 있다.

해녀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바다 속에 들어가 채취한 미역을 이른 아침에 발에 널어 꼬박 이틀을 말린다. 이때 요리조리 뒤집어 가며 충분히 해풍(海風)을 맞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봄이 되면 주전 해안에는 꽃냄새보다 미역냄새가 바람을 타고 일렁거린다.

세찬 바닷바람을 잔뜩 품은 미역은 잘 말린 뒤 600g 분량의 대각(大角)과 200g 분량의 소각(小角)으로 나누어 판매된다.

구입은 주전동 어촌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주전동 집 대문에 '자연산 돌미역 판매처'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구입해도 된다. 돌미역을 채취한 해녀의 집에만 판매처라는 명판이 붙기 때문에 어디

를 가든 최고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소분한 미역 봉해 냉장고 위에 보관

자연산 돌미역의 수확 시기는 1년 중 3월부터 5월까지 단 3개월뿐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말려 판매하는 미역의 맛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1년 동안 먹을 미역을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다.

구입한 미역을 오랜 기간 동안 나눠 먹기 위해서는 보관을 잘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냉동실에 1회 분량만큼 소분해서 넣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소분한 미역을 바람이 들지 않게 잘 봉해 냉장고 위에 두고 먹는 것이 좋다. 냉장고에서 뽑는 열기가 미역을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자연산 돌미역으로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려면 물에 10분 정도 불린 후 거품이 나도록 오래 주물어 빨아서 여러 번 헹구야 한다. 또한 일반 미역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두고 끓여야 돌미역의 시원한 단맛을 살릴 수 있다.

주전동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을 맛보고 싶다면 주전 어촌체험마을을 권하고 싶다. 해녀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전통 방식의 성게 미역국이 단연 으뜸인데, 사전 예약이 필수다.

예약이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직접 채취한 자연산 해산물을 이용한 해녀밥상을 보는 순간 모든 번거로움은 사라지고, 입 안 가득 바다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주전 어촌계 : ☎052-251-6100
주전 어촌체험마을 : ☎052-209-0111



고사리 손으로 조물조물~ “오늘은 내가 요리사!”

“자, 친구들. 치즈를 잘라서 동그랗게 뭉친 밥을 감싸주세요. 다했으면 김을 이용해 꿀벌 모양을 장식해 볼까요?”
울산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M. 최근 리뉴얼하여 재탄생한 신선도원을 메가마트 안에 있는 요리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키즈 수업이 열리고 있다.

요리, 또 다른 배움이 되다!

이곳에서는 매주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쉽고 건강한 메뉴가 준비되는데, 오늘의 메뉴는 꿀벌 주먹밥이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밥알을 뭉치고, 김으로 꿀벌의 줄무늬와 눈을 만드는 꼬마 요리사들의 작은 손끝이 제법 야무지다. 아몬드 슬라이스로 꿀벌의 날개를 만들고, 스파게티 면으로 더듬이를 만든 뒤 방울토마토와 삶은 브로콜리 장식으로 마무리하니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주먹밥이 탄생했다.

밥, 김,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아몬드, 스파게티면, 카레가루... 가지런히 놓여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손으로 만져보는 재료 탐색부터 시작해서 도마에 썰면서 소리를 듣고,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는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이 된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침을 만들고, 데코용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꽃 모양으로 꾸며 꿀벌이 꽃의 꿀을 빨아먹는 모습을 만들기도 했다.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아이들의 기



발한 상상력이 더해져 저마다의 스토리와 개성이 담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멋진 꿀벌주먹밥을 만든 박서은 양(남산초 1학년)은 “직접 만든 꿀벌 주먹밥 도시락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공원으로 봄소풍을 가고 싶다”며 만족해 했다.

살아 있는 학습의 기회

요리는 어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단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된다.

손으로 직접 다양한 재료를 만져보는 경험을 통해 감각 발달과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면서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면 부모와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친구와 함께 하면 협동심도 길러줄 수 있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재료를 다루면서 편식 습관까지 고칠 수 있으니 그 장점이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요리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스튜디오M에서는 잘 만든 결과물보다는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 한다.

어른들 위한 다양한 수업도 마련

스튜디오 M에서는 어린이 요리 교실 외에도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일일 특강이 마련된다.

셀프 베이킹을 비롯해, 양념돼지갈비찜, 주꾸미담볶음탕 등 맛있는 가정식과, 치킨치즈퀘사디아, 삼겹살양념꼬치구이 등 다양한 별미까지 원하는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으니 나만의 특별한 메뉴를 선보이고 싶은 어른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다만 입소문을 타고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까닭에 꼼꼼하게 챙겨 예약해야 하는 부지런함은 필수다.

매월 말, 다음 달 프로그램 스케줄이 나온다고 하니 미리 잘 챙겨 맛있는 요리 수업을 즐겨보기 바란다.

최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5월 키즈 특강

- 3일 '미니햄버거'
- 5일 '컵케이크'
- 13일 '돈가스 스낵랩'
- 14일 '달콤바나나호두경단'
- 27일 '보름달 스모어'
- 28일 '웰빙 코코아 티라미수'

5월 패밀리 특강

- 6일 '짜장해물떡볶이'
- 7일 '카네이션컵케이크'
- 20일 '새우로제스파게티'



스튜디오 M (울산점)

주 소 : 울산 북구 진장17길 10 신산도원물 1층

전 화 : 고객센터 052) 219-6000

강사 김민희 010-2996-7131

수업료 : 과정당 1인 1만원, 프리미엄 과정 1인 2만원 (재료비 포함)

인원 : 선착순 10명

수업 시간 :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화, 수, 목(직장인반) 오후 7시

홈페이지 : <http://studiom.megamart.com>

접수 문의 : 고객센터 전화문의 또는 스튜디오 M 체험관 방문 (수업 하루 전날 오후 6시 예약 마감)



근대화 주역 산업시설이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시뻘건 동백꽃이 아찔한 유혹의 손짓을 거두며 똑똑 떨어지고,
벗꽃마저 온몸을 치근덕거리며 감싸 흘날릴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앞바다의 고운 모래는
돌아누운 인어의 비늘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F1963을 찾았다.
이곳은 쇠소리가 울렸던 삭막한 공장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재생공간으로 거듭나
문화와 휴식을 생산해내는 특별한 공간이다.

공연장, 카페, 펍 등 폐공장의 화려한 변신

F1963은 고려아연의 옛 공장이다. F는 공장을 나타내는 영어인 Factory의 첫 글자를, 1963은 고려아연 공장이 처음 세워진 해를 나타낸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로프를 생산한 뒤 문을 닫아 폐(廢)산업시설로 남아 있던 공간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장을 통해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재탄생했다.

F1963은 전시관과 공연장, 중앙정원을 둘러싸고 중고서점과 카페, 펍 등으로 이뤄져 있다.

중앙정원에서는 대형스크린을 이용해 영화나 공연을 상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세미나나 파티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정원을 빙 둘러싼 로즈마리와 각종 허브식물의 향기는 낡은 공장이 뿜어내는 투박하고 거친 느낌과 조화를 이루며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강릉에서 시작해 핸드드립 커피의 풍부한 맛으로 유명해진 카페 테라로사는 널찍한 공장건물 한 동을 통째로 쓰고 있어 지금까지 본적 없던 탁 트이고 시원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카페 내부는 와이어 공장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 오래된 공장 설비들이 곳곳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풍경에 호기심이 생긴다.





한 번도 칠을 하지 않은 나무탁자는 몇 십 년의 세월을 건너는 동안 무수히 닿았을 사람들의 손길로 뽀얀뽀얀 광이 났다.

그대로 드러나는 공장 천장의 골조, 페인트가 들쭉날쭉 벗겨진 퇴색된 기둥들과 낡은 기자재들이 주는 빈티지한 느낌은 세련된 현대식 커피도구들과 어울리며 커피 맛에 색다른 풍미를 더했다. 책들도 제법 구비되어 있어 한 칸에는 북카페처럼 커피를 마시며 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말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서점도 문을 열었다. 전체 면적 500평 규모에 20만여권이 진열된 매머드급 오프라인 중고책 서점이다. 오래된 책이 주는 편안함을 정돈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방문해 볼 만하다.

그 옆으로 체코 프라하의 정통 맥주 양조시설을 그대로 재현한 맥주집이 위치해 있는데, 지난해 문을 연 이후 크게 성황을 이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5월 중순까지 확장공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대나무 산책로, 도서관,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동물수용시설, 원예관 등이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피카소 작품 390여점 전시

1천800평 규모의 전시관에서는 지난해 20여만명이 방문한 '2016 부산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전시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6월 6일까지는 대표적인 입체주의 화가인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展'이 열린다.

'가장 도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라고 불리며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피카소의 작품 390여점이 전시돼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작과 개인 소장품 등이 다수 포함돼 피카소의 예술세계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10개 섹션으로 나뉘어 다양한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 준다. 1904년 만들었다는 첫 작품부터 1973년의 마지막 작품까지 70년을 아우르는 피카소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투우와 여인에 대한 열정, 문학에 대한 남다른 조예 등이 느껴진다.

또한 독창성을 가득 담은 76점의 도예작품도 전시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은 크게 보고,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대상의 특정부분이 과장돼 3차원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기까지 한 피카소의 작품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를 화폭에 옮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展

전시 기간 6월 6일(화)까지

관람 시간 화~일 오전 10시 ~ 저녁 7시(입장마감 저녁 6시)

수요일 오전 10시 ~ 저녁 8시(입장마감 저녁 7시)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1만원

문의 070-8886-9219

아이들이 더이상 꿈 앞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현관 앞에는 축구공과 축구화가 놓여 있었다.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의 꿈이 가지런히 방문객을 반기는 듯했다.
 형요(14살)와 형서(13살), 두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윤정수 씨(54세)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아이 모두 축구부 활동을 했지만, 형요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운동을 그만뒀다.
 한 달에 70여만원 정도 되는 활동비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윤정수 씨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아이들이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반복되는 다툼, 아내와의 이별

윤정수 씨의 고향은 강원도 태백이다. 고향에서 광산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울산의 한 기업체에 취직한 그는, 4년 정도 목재 일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4남 1녀의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사람을 좋아하고, 평판도 좋았던 그는 몇 년 후 영업쪽으로 직업을 바꿨다. 여기 저기 바쁘게 뛰어 다녔고, 술도 자주 마시게 됐다. 자꾸만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자 아내와 잦은 말다툼이 일기 시작했다.

아내는 노래를 잘 했다.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접지 못했다. 한 번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음약을 한다며 다 써버렸다. 꿈에 매달리느라 아이들도 잘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부부는 결국 헤어짐을 택했다.

아내가 없는 아이들의 생활은 엉망이 됐다. 아이들끼리만 돌 수 없었던 윤정수 씨는 다시 아내와 합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내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됐고, 또 다시 헤어짐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간경화로 투병...응급실 가는 것이 일상

윤정수 씨는 영업일을 오래 하다 보니 잦은 음주로 인해 간 건강이 좋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방치하며 생활했다.

그러다 2008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지방간이 간경화로 진행됐다고 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12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 장에 25원을 주는 스티커 붙이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됐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오랫동안 누워 있을 수가 없었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했다.



도움 계좌 농협 356-0761-9962-43 (예금주: 윤정수)

윤정수 씨는 요즘도 매달 병원을 간다. 어지러워 쓰러지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앞당겨 퇴원을 해보지만, 또 다시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반복한다.

아이들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삶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4년 전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줬다. 매달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나오는데, 형서 측 구부 활동비용으로 25만원을 내고, 월세 33만원을 비롯해 공과금,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늘 부족하다.

현재는 아이들의 학교 근방에 원룸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는데,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이다.

4남 1녀 중 세 아이는 나가서 생활하고, 형요와 형서만 윤정수 씨와 함께 생활한다. 아이들은 책상이 없어 바닥에 엎드려 책을 본다. 오래도록 입어 구멍난 체육복 바지를 볼 때면 부모 노릇을 못해 죄스럽기만 하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윤정수 씨는 청소만큼은 갈끔하게 하려고 한다. 균이나 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마와 칫솔은 항상 햇볕에 말린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오른손에 퇴행성관절염이 와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간이 좋지 않은 통에 약은 먹지 못하고 물리치료만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

요즘 윤정수 씨는 30분 산책을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날마다 간, 위장, 고혈압 약을 먹으며 하루를 버텨낸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픈 모습을 보이지 싶어 항상 미소를 띄고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윤정수 씨에게 아이들은 삶의 모든 것이다. 그가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기대해 본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지끈지끈 콧콧’

일상생활 방해하는 극심한 통증

편두통은 어떤 병인가요?

흔히 편두통(偏頭痛)은 그 이름 때문에 ‘한쪽 머리가 아픈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편두통 환자 중 40% 정도는 양쪽의 두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구별 방식입니다.

편두통을 진단할 수 있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아픈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체하기도 하고,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이러한 증상이 반복됩니다.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에서 갑자기 두통과 오심(惡心)이 발생한다면 편두통이 원인일 확률은 낮습니다.

네번째로 움직이면 ‘골이 흔들리면서’ 두통이 악화되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시끄럽고 밝은 곳에서 두통이 악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두통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섯번째로 편두통은 육신거립니다. ‘멍하고 멍하게’ 아프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지끈지끈, 푹푹 쑤시는’ 양상의 통증이 편두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끈지끈 아프지만 울렁거리는 않는 경우, 편두통이 아닌가요?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성인 중 11%가 지난 1년간 편두통과 비슷한 두통을 앓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편두통 진단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흔한 병인만큼 체질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증상은 대표적인 편두통 증상이며, 이밖에도 얼굴이나 팔이 저리거나, 심하게 어지럽고 배가 아프기도 하며, 시야 일부 부가 뿌옇게 되거나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등 다양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편두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많은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간혹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편두통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어떤 사람은 잠이 부족하면 머리가 아프다지만, 반면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두통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통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편두통 치료는 두통이 생기는 이유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밝고 시끄러운 환경, 흐린 날씨, 강한 햇빛, 직장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나쁜 자세, 배고픔, 담배 연기, 타는 냄새, 페인트 냄새, 음주, 커피치즈초콜릿과 같은 특정 음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유발인자를 피하는 것이 치료의 첫 단추입니다.

생리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픈데, 이것도 편두통인가요?

생리 전, 혹은 생리 중에 편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두통을 '월경기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이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증하면서 머리의 혈관이 확장되고, 여러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두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경기 편두통은 통증 강도가 일반적인 편두통보다 심하고, 지속 기간이 길며, 진통제를 먹어도 잘 가라앉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생리 전부터 두통약을 복용하면 나아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편두통을 예방하는 효과가 증명된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성분이 들어간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혈전 발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경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끊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져 편두통 약을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편두통은 통증이 매우 심해 진통제를 먹지 않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편두통 진통제에는 마000캡셀(노00), 미00캡슐(우00제약), 펜0정(중00), 펜0정(중00), 게00정(삼0제약), 판000내복액(동0약품) 등이 있는데, 효과가 좋고 편리하긴 하지만 카페인 등 중독을 유발하는 성분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이 발생합니다.

치료법은 약을 끊는 것이지만 담배 끊기처럼 어렵고, 힘들며, 반동 두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보조 약물을 복용하면서 서서히 중단해야 합니다.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편두통 발작이 생기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또한 두통 이외에도 불안, 우울, 근육통, 어지러움 등의 동반 증상이 많아 평소 하던 일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월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잠재적인 약물 부작용보다 치료로 인한 이득이 더욱 크다고 여겨 편두통 발생 빈도를 절반 정도로 낮춰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편두통 예방약은 두통이 발생했을 때만 복용하는 진통제와는 달리 매일 먹어야 하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2달 정도 걸려 이해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글 박병수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미숙한 사랑법,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어느 결혼식에서 신랑신부가 신부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가 됐다. 그런데 하객들의 기대와 달리 신부의 부모보다 조부모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신부에게 물어보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느라 조부모님께서 자신을 키워주셔서 그렇다고 했다.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잘못된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일로 마음이 상한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아마 신부에게 조부모님은 무엇을 잘해야 예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신 든든한 지원군이었나 보다.

신부의 말처럼 가족은 따뜻함과 편안함,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다. 가족에게서 받는 안정감과 사랑의 에너지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그런데 가족이 서로를 위해 하는 노력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사랑은 적절한 분배와 타이밍이 중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고 섭섭함만 쌓이기 시작한다면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부터 살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에 맞게 사랑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것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장이 혼자서만 규율을 정하고 통제하다 보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소외되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책임감 없이 의지하기만 할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마음이 앞서 독립심을 키워주느라 떼어놓고, 반대로 사춘기를 거쳐 독립해야 할 때는 ‘너 혼자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며 나도 모르게 아이를 심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아이들은 독립해야 할 시기에 앞으로 나가지도 머무르지도 못해 상처가 생기고, 부모들에게도 걱정과 부담이 쌓이게 된다. 즉, 혼자서 가족을 끌고 가는 사랑보다는 그 역할을 구성원들과 함께 적절하게 나누고, 자녀의 성장과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가족의 마음을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

가족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칭찬받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아이는 간식을 준비하느라 바빠 무심히 넘기는 엄마가 오히려 섭섭하다. 엄마는 '이유 없이' 보채며 우는 아기에겐 짜증이 나지만 아기는 엄마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또 배우자가 힘든 일이 생겨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 주려고만 노력한다면 상대방에게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모두 서로를 위해 애쓰는데, 한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아 속상하고 또 한 사람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다.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만이라도 잘 전달한다면 충분히 서로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

도움보다 지지와 응원이 효과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면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는 것은 무척 힘들다. 하지만 내가 애써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는 감추고 싶은 약점을 들킨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때로는 달려가는 마음을 좀 잡아두고 기다리는 것도 좋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스스로의 힘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상대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이런 방법들을 실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은 단단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가족 간의 소통에서 만들어진다. 소통은 경청, 즉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보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공감해 주다 보면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또 균형 있는 사랑과 소통은 가족 구성원 각각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타인의 감정을 살필 여력이 없어 상대를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옳은 것,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는 이해 받지 못해 답답해 하며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나는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에게 화가 나고 소외감을 느낀다.

너무 무심하거나 혹시 지나친 사랑으로 가족이 힘들어 한다면 이것은 곧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가족 사랑은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글 김명현 상담사(현대미포조선 마음정원)



중동 국가들과 교류협력 강화

현대중공업이 사업 연관성이 높은 중동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길선 회장, 권오갑 부회장과 신현대 조선사업 대표 등 경영진은 4월 6일 울산 본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3개국의 주한(駐韓) 대사를 만났다.

경영진은 3개국 대사 일행과 오찬을 하며 조선 및 육해상플랜트, 전력기기 분야에서 각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ARAMCO)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우디 현지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기술로 LNG선 시장 적극 공략

현대중공업이 LNG분야의 첨단 기술을 앞세워 LNG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지바(千葉)시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산업 관련 전시회겸 국제회의인 '가스텍(GASTECH) 2017'에 참가했다.

현대중공업은 약 150m²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LNG-FSRU, LNG-FPSO, LNG연료 추진 선박 등의 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가삼현 그룹선박해양영업대표와 정기선 그룹선박해양영업부문장은 전시회 기간 동안 50여개 주요 고객사와 잇달아 미팅을 갖고, 신규 수주와 사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형엔진 장기 파트너십 체결

현대중공업이 최근 덴마크 만 디젤&터보(MAN Diesel&Turbo), 스위스 빈터투어 가스&디젤(Winterthur Gas&Diesel)사와 업계 최장기간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만 및 빈터투어사와 전자제어식 디젤 엔진을 비롯해 가스 및 이종연료 엔진 등에 대한 원천기술을 각각 16년, 14년간 제휴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평균 5년 단위의 엔진 업계의 라이선스 기간을 이례적으로 3배 가량 늘려 제휴업체의 인수합병 등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엔진 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세계 1위 엔진메이커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웨이크 발전소 전력생산 개시

현대중공업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슈웨이크(Shuqia)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총 4기의 발전시설 중 3기(2~4호기)를 완공하고, '초기 전력생산(Synchronization)'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은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29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기의 발전시설을 순차적으로 가동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유사 공사인 제다사우스발전소에서 총 70일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40일 이상을 단축한 것이다.

한편, 발주처인 사우디전력공사(SEC)는 5월 중순 성공적인 초기 전력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품질 대폭 개선 명품장비 발표

현대건설기계가 4월 12일 울산 본관 앞에서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공기업 현대건설기계 사장, 정기선 기획실 부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장비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엔 선보인 명품장비는 14톤급 휠 굴삭기(모델명: HW145-D)와 30톤급 지게차(모델명: 30D-9H) 2종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전체적인 품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이날 권오갑 부회장은 "명품장비 출시를 계기로 경쟁력을 키워 1등 건설기계 업체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공기업 사장은 "매출 비중이 큰 주요 제품들의 성능 개선을 통해 2023년 매출 7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노버 전시 '에너지 솔루션' 홍보

현대일렉트릭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산업박람회인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 2017'에 참가해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인 '인티그릭(INTEGRIC)'을 해외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약 33평(110㎡) 규모의 전시 부스에서 빌딩·공장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Energy Management Solution)', 선박기관 및 전력 계통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십 솔루션(Smart Ship Solution)' 등 인티그릭 관련 상품을 홍보했다. 인티그릭은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에너지 솔루션 상품들의 브랜드다.



커민스와 엔진 원격진단 개발 나서

현대건설기계가 최근, 미국에서 세계적인 엔진 기업인 커민스(Cummins)와 '건설장비 엔진 원격진단 시스템'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 현대건설기계는 자체 원격관리시스템인 '하이메이트(Hi-Mate)'에서 수집한 장비 가동정보를 커민스와 공유해 엔진의 고장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정비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기계와 커민스는 오는 6월까지 시제품을 개발한 후, 성능 보완과 실증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는 고장진단뿐 아니라 원격으로 엔진제어까지 가능한 '장비 성능 최적화서비스'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마라톤 뛰며 비전 달성 다짐

현대일렉트릭이 4월 8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제 14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에 단체로 참가해 국내 최대 전기전자 전문기업의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주영걸 현대일렉트릭 사장을 비롯해 영업과 연구개발, 자원부문 등의 현대일렉트릭 임직원 240여명은 하프와 10km, 5km 코스 등에 출전해 현대일렉트릭의 희망찬 미래와 비전 달성을 기원하며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주영걸 사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준 임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오늘 마라톤처럼 함께 뛰고 함께 호흡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2017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

현대미포조선이 그룹 인재개발원에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2017년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팀반장 이상 직책자 450여명이 참석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경영환경과 회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대한양공협회 서거원 감독과 대한농구협회 방 열 회장의 특강을 통해 리더십과 팀워크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한영석 사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종 다변화와 복합공정 체계화를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로팩스 시공발표회 개최

현대미포조선 생산부문이 4월 14일 한우리회관에서 '로-팩스(RO-PAX)선에 대한 시공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처음으로 건조하는 로팩스선에 대한 주요 정보와 특징, 건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 공정 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팩스는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7월 한중합작선사인 '위동항운유한공사'로부터 수주한 이 선박은 길이 199.1미터 너비 27.0미터 높이 32.0미터 규모로, 720여명의 승객과 40피트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 약 140대를 동시에 싣고 최고 25노트(knot)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팀반장 춘계단합대회 열려

현대미포조선이 4월 1일 영포산 및 방어진체육공원 일원에서 팀반장 춘계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팀반장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총 220여명의 사우들이 참가해, 산행과 운동경기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올해 목표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한 작업장 및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 ▲고품질 선박 건조 및 고객만족 강화 ▲개선 제안활동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영석 사장 비롯해 관련 부서 임원 및 부서장 40여명도 참석해 생산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팀반장들을 격려했다.



사내 카페테리아 개장

현대미포조선 첫 사내 카페테리아인 '아프로디테'가 4월 7일 문을 열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美)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 카페테리아는 75.4㎡(22.8평) 규모에 총 35개의 좌석을 갖추고,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식과 음료를 판매한다.

특히 점심시간에 사내식당 대신 이곳을 이용할 경우 샌드위치, 미니햄버거와 같은 간편식과 커피, 주스 등 음료를 포장해 갈 수 있으며, 가격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임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장식에는 한영석 사장과 강원식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해 임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휴게공간이 마련된 것을 축하했다.



LNG운반선 설계부문 시공 발표회

현대삼호중공업이 4월 7일 TEEKAY사의 17만4천CBM급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설계부문 시공발표회를 열었다. 임원, 부서장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는 사업기획부, 종합설계부 등 6개 설계부서 관계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생산부문장인 이상균 전무는 총평을 통해 "실적선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점을 반영하고, 실적선 대비 변경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완벽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선박은 오는 7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2019년 1월 말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네레우스사 원유운반선 건조 프로젝트 마무리

현대삼호중공업이 3월 31일 그리스 네레우스사가 발주한 15만9천톤급 원유운반선의 마지막 호선인 S798호선의 인도서명식을 가졌다. 길이 274미터, 폭 48미터, 깊이 23미터 규모의 이 선박은 지난 2014년, 네레우스사로부터 수주한 4척의 시리즈 선박 중 마지막 호선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5월 첫 호선을 인도했으며, 이번 인도를 마지막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네레우스사는 현대삼호중공업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품질 선박 건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릴레이 일일 안전 캠페인 실시

현대삼호중공업이 4월 10일부터 3주간 부서별 '릴레이 일일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캠페인은 사우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 속 안전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는 남문을 제외한 사내 전 출입문과 버스승강장에서 출근길 사우들에게 전단지 배부하며 안전한 하루를 보내길 기원했다. 홍보전단지에는 '생활 속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을 비롯해 '응급 처치 알아두기' 등 각종 대처 방법도 수록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우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클 연합회, 환경정화 봉사

현대삼호중공업 서클연합회가 4월 15일 영암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출산 일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사내 서클 임원진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월출산 기찻길을 걸으며 페트병, 폐비닐, 전단지, 플라스틱, 담배꽂초 등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또한 아름다운 봄의 정치를 만끽하며 우리 고장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한편, 서클연합회는 1년에 4회, 환경정화활동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 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현대히스 |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현대히스(대표: 김재훈)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 14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했다.

이 전시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시회이자, 세계 10대 태양광 전시회 가운데 하나다. 현대히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 제품인 태양광 인버터(전력 변환장치)를 비롯해, 1MW급 대용량 고효율 ESS(태양광 전력 저장장치) 패키지 제품,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의 태양광 모듈 등을 함께 선보이며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렸다.

| 서울아산병원 |



지난해 암환자 90만명 진료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이 지난해 치료한 암환자 수는 90만6천985명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6.21%씩 증가하고 있다고 4월 13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암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1만9천506건 △항암화학요법 16만3천건 △방사선 치료 10만3천925건 등을 시행했고, △통합진료 및 전문-특화진료 실적도 2만3천470건으로 지난 2015년(2만746건)보다 13.1% 증가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운영, 암 치료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후유증 등을 관리하며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돌보고 있으며, 지난해 클리닉을 이용한 환자수는 1만6천418명에 달한다.

| 울산대학교병원 |



부속병원 전환 기념식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기)이 4월 4일 병원 강당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과 정용기 병원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부속병원 전환 기념식'을 개최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울산의대 협력병원에서 부속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 치료는 물론 의학 연구, 인재 육성 등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지역 사회와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1975년 120병상 규모의 현대중공업 부속병원인 '해성병원'으로 설립된 이후 1997년 대학병원으로, 2015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961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울산 지역의 의료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신흥대학 101위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최근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설립 50년 미만 세계 신흥대학평가(Young University Rankings)'에서 101위를 차지했다.

이는 THE가 △교육 여건 △연구 실적 △논문인용 학계 영향력 △기술이전 실적 △국제화 수준 등 5개 영역 13개 항목에 걸쳐, 설립 50년 미만의 대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울산대학교는 47개국 187개 대학과 연계한 교환학생 제도와 최고 수준의 공학의료 교육 시스템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국내 대학 중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다음으로 4위를 기록했다.

| 울산대학교 |



국가부지 토양 분석기관 선정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허정석) 종합환경분석센터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전국 유일의 '국가부지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기관'에 선정됐다.

이로써 울산과학대 종합환경분석센터는 올해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국가부지의 토양 분석을 전담하고, 6억9천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군사시설, 철도시설 등 10개소에서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종합환경분석센터는 △2008년 토양관련 전문기관 △2011년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잇달아 지정되는 등 토양 및 수질조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개최

호텔현대(대표: 고승환)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날 씨마크호텔(강릉)은 총 2회(10시, 16시)에 걸쳐 키즈클럽(호텔 1층)에서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아이싱 쿠키 꾸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호텔현대 경주는 17시 30분부터 컨벤션홀에서 △비보이 공연 △댄스경연대회 △OX퀴즈 등 저녁 식사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특선 뷔페 이벤트'를 진행한다.

호텔현대 울산은 14시부터 다이아몬드홀(2층)에서 투숙 또는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케이크 만들기(Sweet Cake Cooking)' 프로그램을, 호텔현대 목포는 뷔페식당(토파즈) 이용 고객들에게 식석 쿠폰과 케이크 교환권 등을 증정하는 추첨 행사를 열 예정이다.

| 호텔현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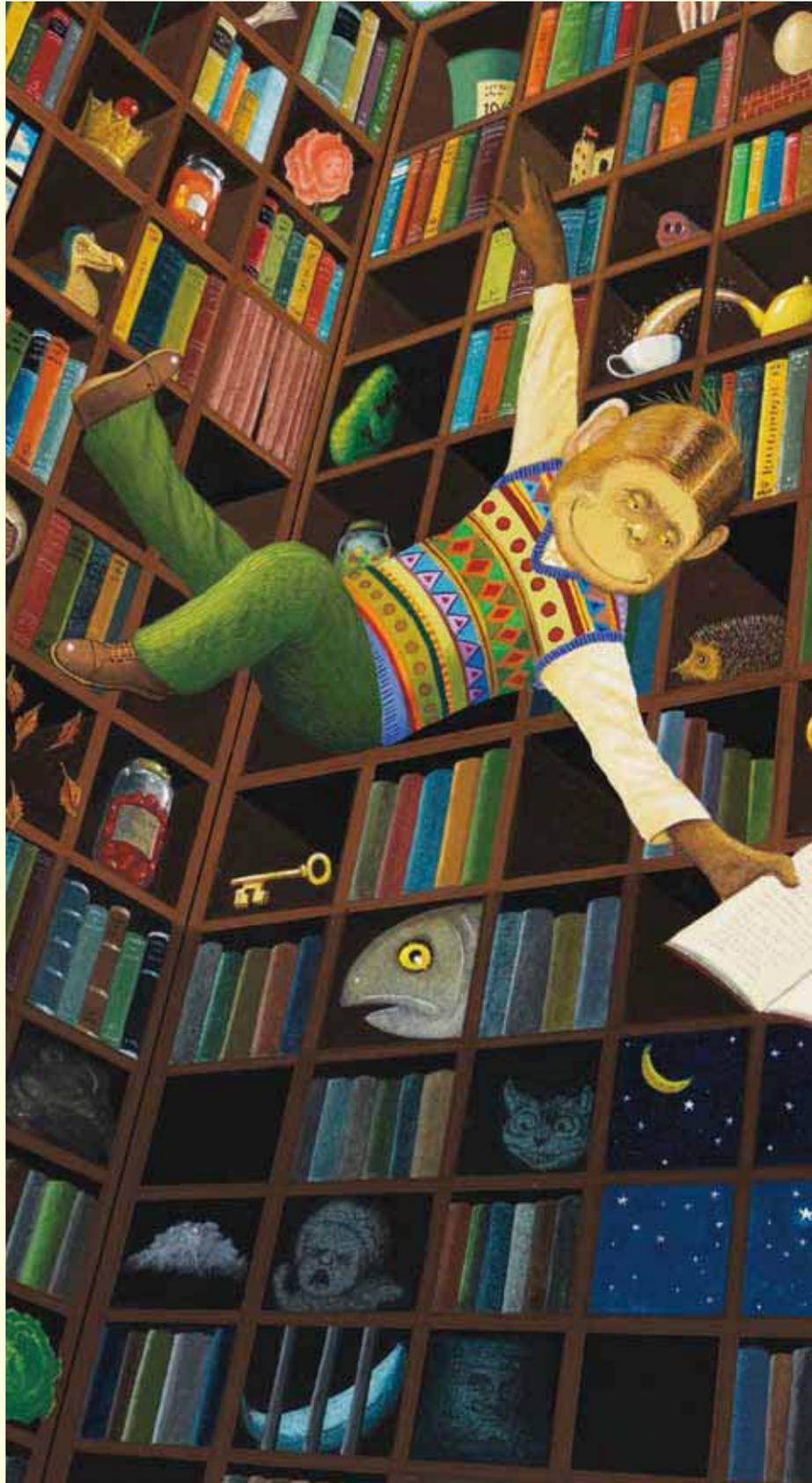


체험과 전시를 함께, 아이도 어른도 '행복'

기발한 상상력과 이색적인 그림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의 대규모 원화 전시 '행복한 미술관'이 6월 25일까지 현대미술관 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그의 대표작 '고릴라', '동물원' 등에 삽입된 그림들뿐 아니라, 앤서니 브라운의 초기작부터 미공개 신작까지, 다양한 매력의 원화 200여점이 전시된다.

앤서니 브라운은 "그림책은 나이가 들었다고 접어야 할 책이 아니라, 나이를 불문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개성 넘치는 그림을 통해 아이들에게 설렘을, 어른들에게 동심을 선물해 왔다.





이번 전시는 책으로만 접해왔던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들을 원화로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통해 특별한 순간들을 제공한다. 부모와 아이, 친구가 함께 행복을 충전하는 휴식 같은 시간이 되어줄 것이다.

전시장 안에는 먼저 아이들의 자발적인 독서를 유도하는 특별한 공간인 '앤서니 브라운 도서관'이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책과 원화를 마음껏 접할 수 있다.

또한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와 침팬지를 나만의 캐릭터로 만들어보는 '아트토이 그리기 이벤트(유료)'도 함께 진행된다. 그림을 눈에 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더욱 신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예술의 즐거움이 살아 숨 쉬는 공간! 남녀노소 모두에게 행복한 웃음을 되찾아 줄 '앤서니 브라운展 - '행복한 미술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Profile

앤서니 브라운 Anthony Browne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책 작가 중 한 명.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친구하자', '꼬마곰과 프리다', '고릴라' 등을 그렸다.

2000년 영국 일러스트레이터로서는 처음으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어린이 문학 계관 작가로 선정되었다.

관람 정보

일 시 | 4월 27일(목)~6월 25일(일) 오전 11시 ~ 저녁 7시 30분 (입장 마감 7시)
*월요일 휴관

장 소 | 현대예술관 미술관
티켓가 | 성인 9천원, 청소년·어린이·유아 7천원
문 의 | 현대예술관 미술관 (☎209-7858)

김경호 · 홍경민 콘서트

**대한민국 막강 보컬,
그들이 온다!**

대한민국 록의 전설 김경호와 연예계 대표 만능 엔터테이너 홍경민이 함께 올산 현대예술관을 찾는다. 수많은 개인 히트곡뿐 아니라 각종 노래경연 프로그램에서 들려줬던 명곡의 재해석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열정적인 무대로 가득 채워진 이번 공연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껴보자.



김경호

1997년 1집 '마지막 기도로' 데뷔한 이후 수많은 히트곡들을 탄생시키며 록 음악의 매력을 알렸다. 날카로운 고음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록의 전설'로 불리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홍경민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무대매너로 '흔들린 우정', '가져가' 등 다양한 곡들을 히트시키며 1990년대 최고의 가수로 떠올랐다. 이후 자신만의 감성과 센스로 MC, DJ, 뮤지컬,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관람 정보

일 시 | 6월 17일(토) 저녁 7시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 | 1층 8만8천원,
2층 6만6천원



홈팬들을 위한 승리의 포효는 계속된다!

새로 산 신발이 발에 꼭 맞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울산 선수들과 김도훈 감독은 팀에 꼭 맞는 전술을 찾기 위한 적응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리그를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리그 초반인 현재, 울산의 행해는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 방향은 올바르게 잡았다.



울산현대 5월 경기일정

일시	상대팀	장소	비고
5/3(수) 오후 3시	대구 FC	울산문수 축구장	K리그
5/6(토) 오후 3시	수원 삼성	광주월드컵 경기장	K리그
5/10(수) 저녁 8시	브리즈번 로어 (호주)	호주 선코프스타디움	ACL
5/14(일) 오후 5시	전북 현대	울산문수축구장	K리그
5/20(토) 저녁 6시	전남 드래곤즈	울산문수 축구장	K리그
5/27(토) 저녁 7시	서울 FC	서울월드컵 경기장	K리그

울산은 홈에서 열린 4월 첫 경기에서 강원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16일 서울과의 홈경기는 1-1로 비기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이영재, 정재용 등 어린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홈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직접 경기장을 찾은 홈 관중들을 의식해 서알까?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를 포함해 홈에서의 승률이 원정 승률의 2배가 넘는 울산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더 많은 팬들이 가족과 함께 문수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의 5월이 기대되는 이유다.

팬들과 호흡하는 구단으로

울산현대축구단은 올해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홈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서울과의 홈경기에서는 여성그룹 '씨니힐이 문수구장을 찾아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남성 팬들을 사로잡았다.



또 어린이 팬들을 위한 자동차 서킷과 각종 체험 부스, 페이스 페인팅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품 행사를 통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은 팬들과 선수간의 밀착 프로그램인 '선수 사인회'와 '경기 후 뒤풀이마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구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행사가 많다. 문수구장을 찾아 울산현대 대추구단이 홈팬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즐기는 것도 울산을 응원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달의 선수 - 이영재



“기회를 실력으로 만드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왼발만을 사용하던 공격수가 오른발로 골을 넣는다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 없이 많은 슈팅연습을 통해 상대팀에게는 당혹감을, 울산현대에는 승리를 선물한 이영재 선수와 만났다.

자신을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가수 유희열 씨를 닮은 울산현대 미드필더 이영재입니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인상적인 자기소개다. 크게 공감되긴 하지만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제가 정말 유희열씨를 닮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은 물론 동료 선수들도 저를 '유희열'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저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유희열 씨를 닮았나요?

경기 얘기로 넘어가겠다. 시즌 마수걸이 골로 강원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오른발 슈팅이었기 때문에 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킥을 할 때나 드리블을 할 때 주로 왼발만을 사용하다 보니 상대 수비수들의 왼발 견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훈련 때 오른발로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 골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 뿌듯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영재 선수의 복귀를 반겼다. 부산에서의 1년은 어땠나?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이도 동료들과는 금방 친해졌지만, 낯선 챌린지(2부리그) 무대다보니 시즌 초 적응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돌아온 이후 눈빛도, 움직임도 바뀐 것 같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함께 입단했던 승현이(정승현)나 승준이(이승준)가 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제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께 바뀐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과 비교해 자신의 장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킥의 정교함 면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 경기에서 장점을 살린 킥패스(골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 패스)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수비적인 부분인데요, 여러 감독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만큼 반드시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울산현대의 예상 순위와 자신의 각오.

울산이 경기가 거듭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준우승'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만 23세 선수에게 주어지는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문수경기장에 제 현수막이 걸리는 날을 꿈꾸며, 앞으로 주어진 기회를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힘찬 각오를 전하는 정재용 선수의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손끝마다 봄이 한 가득

한마음회관 '플라워 아트'
 시간 목요일 저녁 6시 30분 ~ 8시 30분
 장소 한마음회관 3층 공예실
 수강료 2만5천원/1개월
 재료비 1회당 1만5천원 이하



한마음회관 3층 공예실. 강좌가 한창인 강의실의 문을 열었을 때, 코에 닿는 향기로움과 눈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모든 감각을 깨웠다. 꽃꽂이에 몰두한 교실 전체가 봄을 가득 담고 있었다.

한마음회관 플라워 아트는 회관이 개관한 1991년부터 26년간 이어지고 있는 최장수 강좌다.

단번에 막강한 내공이 느껴지는 강사 민숙희 씨가 첫 강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수강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한결같은 미소로 수강생들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그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현재 울산꽃꽂이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고 한다.

플라워 아트 강좌에서는 꽃꽂이 기초과정(취미반)을 비롯해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반, 취업개업을 위한 강좌 등이 병행된다.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은 초급은 6개월, 중급은 1년, 고급은 2년 정도 배우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업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보들도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다. 차근차근 꼼꼼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민숙희 씨의 노련함에서 30년간 쌓아온 내공이 느껴진다.

민숙희 강사는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힌 다양한 꽃꽂이 스타일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특히 매번 다른 소재로 정성껏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많은 꽃을 이용해 화려한 색감으로 이목을 끄는 서양식 꽃꽂이와 단순하고 소박하면서 은은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동양식 꽃꽂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성전(聖傳) 꽃꽂이를 배우고 있는 일흔이 넘으셨다는 어르신은 오늘 수업을 오시면서 직접 꽃꽂이를 구상해 스케치를 해오셨다. 아직 배우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열정만큼은 전문가 못지 않다. 역시 배우에 나이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든다.

“꽃을 보고 만지다 보면 여기저기 찌뿌듯했던 느낌이 싹 사라진다”며, “월에 치료라는 게 따로 없다”고 입을 모으는 수강생들의 얼굴에 활짝 미소가 번진다.

두 해 전까지만 해도 수강생들로 교실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예닐곱명만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올 봄이지만, 아름다운 꽃들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강생들을 기다린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삶을 채우는 행복한 비움

Minimal life

“버리고 나니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필요 없는 것은 아예 없애거나 줄이면서 소박한 삶을 찾아가는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주목 받고 있다.

201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라이프스타일은 물욕(物慾)을 버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살아가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삶을 뜻한다.

미니멀 라이프족(族)은 “버리고 나니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처음에는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설거지가 줄어들거나, 방이 깨끗해져 기분이 좋고 청소하기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고 한다. 버리기 아까워서 주저했지만 물건이 나간 텅 빈 자리에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유를 발견하거나,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묻게 되고, 내가 추구해야 할 행복을 되짚어 보게 되면서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미니멀 라이프는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택하는 '절약'이 아니다. 삶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정하고, 기준을 세워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길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내 삶의 방향을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예컨대 단순히 100개 이하의 물건으로만 사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절제와 금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소비, 집착과 관련된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오직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게 미니멀 라이프족의 덕목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쓸데없이 많이 가진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아무리 낡고 오래된 물건이라도 한 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다시 내놓기란 쉽지 않다. 몇 년째 쓰지 않은 물건도 '혹시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버리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단순히 물건을 버린다고 행복해질까?'라는 의구심은 버리고, 옷장과 서랍장 속 쓰지 않는 옷이나 잡동사니를 버려보자. 읽지 않는 책은 헌책방에 넘기고 말이다.

더불어 구매 시점부터 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용 빈도가 적은 물건은 구매하지 않고 빌리거나 공유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자.

평범한 사람들이 물욕을 버리고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오히려 욕심이 삶을 더 활력 있게 해주는 동인(動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물욕이 과욕이 되면서 아무리 풍족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무엇을 소유하더라도 그 만족감은 잠시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비움으로 행복해지는 삶이라면 한 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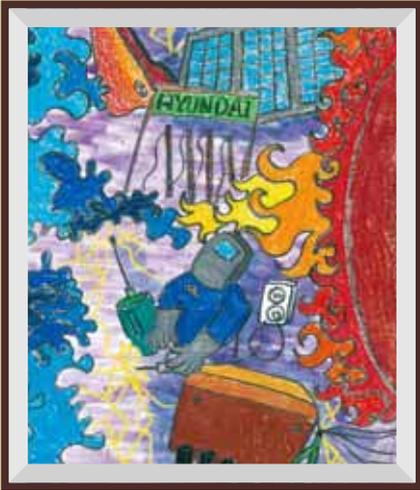
버리기 비법

- 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묻는다.
- ② 아깝다는 걸 핑계삼지 않는다.
- ③ 선입견을 버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돌아본다. 당연하게 여겨온 물건도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로 꼭 필요한 물건을 버렸다고 해도 다시 사면 그만이다.



순수하고 기발한 상상력 가득!

'사우 자녀 그림 공모전'에 제출된 그림 중 아쉽게 우수작으로 선정되지 못한 자녀들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사우 자녀들의 귀여운 상상력을 만나 보세요!



'친환경에너지로 미래 개척'

권휘훈(방어진초 5학년) | 권용규 사우(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생산부) 자녀

물과 번개, 태양광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산업화에 사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미래를 앞장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되었으면 합니다.

'굴삭기, 로봇으로 변신!'

송재윤(화암중 2학년) | 송민규 부장(현대통합미디어) 자녀

미래의 굴삭기는 만화에서 보던 로봇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굴삭기 로봇은 타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캐치해 땅을 파는 등 좀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주로 날아간 배'

지승혁(목포부주초 2학년) | 지용현 사우(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 자녀

우주로 날아간 로켓이 배로 변신해 다른 행성으로 운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미래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바다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지배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에서 현재의 답을 찾다



이경준 대리 |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으로 시끄러운 요즘, 문득 '우리 선조들이라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나에게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은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책이다.



흔히 '왕'이라고 하면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행하거나, 궁궐 내 모든 여인들을 소유하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역대 조선의 왕들은 어려서부터 반강제적으로 학문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고, 함부로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어찌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철저히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능력중심 사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먼저 술선수범하여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경연'이라는 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연'은 왕이 신하와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현실 정치를 의논하는 자리로, 신하들은 왕에게 끊임없는 공부를 요구했다.

그리고 왕에게 신하들의 상소문을 읽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배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요즘 사회로 보면 잠자기 전, 자신에게 달린 인터넷 약물을 읽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이 책에 수많은 왕들의 행적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행보는 단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세종대왕이 최초로 여론조사를 통해 백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대목에서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어찌 보면 못 배운 사람들의 하찮을 목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의견까지 수렴할 줄 아는 리더,

열린 사고로 주위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세는 회사에서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 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결국 백성들의 입장에서 운 좋게 애민군주를 만나면 천만다행인 것이고, 운 나쁘게 무능한 왕을 만나면 외척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르다. 지금 우리에게 세종과 같은 어진 리더, 참된 일꾼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소중한 투표권이 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산군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카(E. H. 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읽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나는 어떤 리더로 성장해야 할지 고민하게 한 좋은 경험이었다.



가난한 청년들의 피크닉

강정석 | 2016년 현대중공업 퇴직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
하는 우리 남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72년 9월 하순, 한적한
울산의 변두리 어느 바닷가에서 젊은 청년 여섯 명
이 어부러져 부르는 취기 오른 노래 소리가 제 멧
에 귀여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금은 세계 최첨단의 해양구조물과 선박을 건조
하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본부가 들어서 있
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화암 바닷가의 45년
전 풍경이다. 그곳은 이름도 참 예쁜 ‘꽃바위’이다.
그땐 공장은 물론이거니와 민가도 없었다. 갈매기
만 끼룩 끼룩 날아다니고, 완만한 경사의 바닷가에
는 검은색 평퍼짐한 바위와 몽돌만 깔려 있었다.
찰싹이는 파도소리만 들리는 그곳은 어찌 보면 ‘무
인도 풍경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긴 현대조선소가 지어지고 있는 전하
동에서도 10리 넘게 떨어진 외진 곳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가난했다. 직장도 구하
지 못해 돈벌이를 못하니 당연히 돈이 없어 궁할
수밖에 없다. 대낮에 술기운 별걸개 오른 얼굴로 어
린놈들이 소주를 마시며 고성방가하는 모습을 어
른들이 봤다면 혀를 끌끌 차기에 충분한 광경이었
지만, 무인도 비슷한 그때 그 곳엔 가난한 청년들
과 갈매기 몇 마리뿐이었니 아무 상관이 없었다.

우리는 전국 팔도에서 조선기술을 배우겠다고, 건
강하고 젊은 몸뚱이 하나 가지고 울산에 흘러 들
어 온지 한 달남짓 된 현대조선소 훈련 1기생들이
였다. 입혀주고, 재워주며, 기술을 가르쳐서 취직까
지 시켜준다는데 당시 대한민국에 이렇게 희망찬
일터가 없었다.

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훈련소에 입소한 우리
는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없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가난한 청년들이었다. 그렇지
만 3년씩이나 되는 엄한 군대생활을 완수한 건강한
정신에서 우러나는 의욕만큼은 최고인 ‘열혈 청년’
들이었다.

나는 그때 스물네살로 여섯명 중 막내였다. 이 바닷
가의 소주 파티를 바람잡고 주도한 스물여덟 살 먹
은 리더 친구는 세상 경험이 제일 많았다. 그는 수
완도 좋고, 말도 재미있게 잘했다. 술도 잘 먹고 노
래도 잘했다.

그와 나는 룸메이트였는데 밤에 자다가 창문을 두
드리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눈을 떠 보면 바깥 창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다. “오
빠, 고구마 찐 것이야! 출출할 때 드세요!” 하며 고
구마 한 접시가 썩 창문에서 들어오기도 했다. 구
내식당 아가씨와 그를 오빠라고 따르며 야식을 가
끔 몰래 창문으로 썩 배달하는 것이다. 나는 덕분
에 가끔 야식을 얻어먹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1972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생각있으면 나를 따라
와!” 아침부터 리더가 호기 있게 바람을 잡았다. 사
실 갈 곳도 없는 천라타향에서 안 따라 나설 이유
가 하나도 없었다. 기숙사 옆방까지 합쳐서 다섯 명
이 따라 나섰다.

기숙사 뒷동네의 그 친구 단골집에서 10인용쯤 되
어 보이는 커다란 양은 술 한 개를 빌려 내가 들고,
이어서 구멍가게에서 소주 1.8리터짜리 두 병을 사
더니 그건 다른 두 친구에게 들렸다.

그렇게 청년 여섯명이 어슬렁거리고 짙길거리며 걷
고 또 걸어서 드디어 꽃바위 바닷가에 도착했다. 상
쾌한 9월의 바닷바람은 시원했고 맑은 가을 하늘
은 더없이 푸르렀다.

인적이 없는 호젓한 바닷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

45년 전 찼었던 청춘들의 추억은
아직도 흑백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분은 상쾌했다. 벽돌장만한 돌덩이를 주워 모아서 아궁이를 만들고 양은술을 올려놓았다.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빨감을 준비하고, 전부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다. 술안주는 바닷속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홍합이다.

45년 전 울산의 바다는 청정 자연 그대로였다. 침방 침방 바다 안쪽으로 열 몇 발자국 들어가니 바닥 전체가 홍합 덩어리다. 홍합이 수십 개씩 덩어리져서 바위 돌에 엉겨 붙어 있는 것이다. 충청도 농촌에서 자란 나는 처음 경험하는 생경한 장면이기에 더욱 재미있었다.

청년 여섯명이 바닷속을 훑으니 금세 청정한 자연산 홍합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홍합의 껍을 바닷물에 대충 씻어 잘 생기고 굵은 걸로 골라 맨 술에 집어 넣으니 그 큰 술에 가득 차서 술뚜껑이 안 닫힐 정도였다.

물은 부을 필요도 없다. 홍합 자체의 국물로 별도의 양념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진국이 된다. 불을 지피니 술 주위에 구수한 홍합국물 냄새가 술술 퍼진다.

이제 청춘들이 둥글게 둘러앉았다. 당시 경상도에서 25도 짜리 대선 소주는 맛이 독했다. 그렇지 않아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나는 한 모금 넘길 때 마다 '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자연산 청정해역에서 나온 싱싱한 홍합의 맛은 내가 지금까지 맛본 최고의 술안주였다. 바로 옆 바닷속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술 안주가 지천에 널려있고, 넉넉한 댕 병 소주가 두 병이나 있으니 청춘들은 행복했다.

모두 취기가 오르고 흥에 겨워지자 어깨동무하며 알고 있는 유행가는 다 꼬집어 내서 목청껏 내질렀다. 9월의 늦더위에 누구랄 것도 없이 겉옷을 주섬주섬 벗고, 팬티 한 장 남긴 물골의 가난한 청춘들이 유행가를 소리 지르듯 부르는 장면은 민망하기도 하나, 주변 어디에도 우리 말고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청정한 해역에서 잡은 홍합과 구수한 홍합 국물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니 몸에 취기만 오른다. 내가 평분 좋게 술을 마셔본 그 댕가 가난한 청춘들의 피크닉 추억은 그때 찍은 추억의 빛 바랜 흑백사진에 그대로 담겨있다.

그 곳! 45년 전, 내가 청춘의 시절에 옛 친구들과 양은술에 홍합을 삶아 먹으며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흥에 겨워 노래를 불렀던 꽃바위의 바닷가를 다시 찾아 보았다. 그곳이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 어디쯤 될 것 같다.

너무나 변해서 그곳쯤으로 추정되는 여기에선 지금 세계 최대의 FPSO가 건조되고 있다. 어느 나라, 어디에서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최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조선소가 아니면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천지개벽이고 상전벽해라고 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다.

45년 전, 그 다섯 명 친구들의 소식을 지금은 모른다. 바닷가 피크닉을 주선했던 수완 좋은 그 친구와 다른 한 친구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것을 몇 년 전에 들었다. 술을 무던히도 좋아했던 그 친구는 간이 나빠져서 투병생활을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다른 조선소를 옮겨 다니는 통에 소식이 끊겨서 나머지 친구들도 지금은 서로 소식을 모르고 지낸다.

무인도 같은 한적한 바닷가 풍경. 그곳에서 흥에 겨운 가난한 청춘들의 홍합 소주 파티와 세계 최대, 최초, 최첨단 해양플랜트 건조가 한 장소에서 한 시대에 일어난,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장면의 조합이 내 머리 속엔 한 장의 그림으로 새겨져 있다.

빛 바랜 그때의 흑백사진을 볼 때면 아직도 옛그제의 일처럼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 난다.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이 있다

이 숙 | 유동성 직장(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 아내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늘 남몰래 눈물 훔치던 엄마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당시, 우리 사회의 풍습과 편견에,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엄마는 집안 식구들의 아쉬운 한숨 속에서 삶을 살아오셨다. 그때의 나는 너무나도 어렸기에 나보다 더 큰 엄마를 위로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저 슬퍼하는 엄마를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밝게 웃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내 유년의 모습이 아스라이 떠오른다. 마냥 어리기만 할 줄 알았던 내가 세월이 흘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토끼 같은 자식들과 멋진 남편과 그렇게 오순도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1997년이 되던 해, 우리나라엔 IMF 외환위기가 불어 닥쳤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힘들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나도 함께 바깥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예전부터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하는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답해왔었다. 젊은 시절 추억으로만 간직했던 나의 꿈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숙 공부방>이라는 문패를 걸고 공부방을 꾸려나갔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신나게 바쁘게, 맛나게 그렇게 17년을 참 열심히도 뛰어나왔다. 그렇게 나의 삶엔 행복한 날들만 이어질 줄 알았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과 같이, 행복이 견고해 질 때쯤 아무도 모르게 시련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뇌종양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절망스러웠다. 순간 꿈을 끈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누군가 나에게 '꿈이야 속아 일어나!'라고 말해줄 것만 같았다.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 올 줄 그 누가 알았을까?

2017년 2월 28일, 검사를 받고 입원을 했다. 후회, 반성 그리고 전하지 못한 고마움으로 밤 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무서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분주하게 수술 준비가 시작됐다. 길었던 머리카락이 잘리고 수술 전 각종 검사를 받았다.

검사 도중 하나님, 부처님, 내가 아는 모든 신에게

‘제발 나를 좀 도와 달라’며 빌고 또 빌었다.
 “수술 얼른 끝내고 밤에 두 손 꼭 잡고 ‘집시맨’보
 자”
 수술실로 들어가는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져왔다.
 부디 내가 종양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고 돌아오겠
 노라며 다짐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나를 흔들며 부
 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
 는 간호사의 말이 들려왔다.

‘하나님, 부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 커다란 창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해져 왔다.
 아침을 알리는 눈부신 햇살, 여기저기 들리는 분
 주한 사람들의 소리. 술한 날들의 하늘과 구름을
 보았지만 그날만큼 황홀했던 하늘은 아마 내 인
 생을 통틀어 다시 없을 날들일 것이다.

추운 겨울이 그렇게 지나가고 어느새 꽃잎 흩날리
 는 봄이 왔다. 나는 요즘 하루하루 행복 속에 살아
 가고 있다. 인생에서 있을 가장 큰 고비를 넘겨서
 인지 평소와 같은 이 날들은 나에게 더 의미 있고
 감사하다.

딸 일곱을 낳아 눈물 가득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
 엄마도 언제 그랬냐는 듯 손자, 손녀의 재롱 속에
 서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의 난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간 나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들을 모두 거친 다음에야 비
 로소 진정한 성공과 소망과 행복이 열릴 것이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
 살아있는 한 희망의 꽃은 핀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묘미이고 비밀이다.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묘미이고 비밀이
 기 때문이다.

요즘 조선 경기가 어렵다며 다들 한 마디씩 던진다.
 그러나 마이너 시대, 그것은 언젠가 찾아올 메이저
 시대에 대한 찬란한 약속이고 예고이다.

세계 최고의 위상을 펼쳤던 현대삼호중공업의 메이
 저 시대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마치 지금의 나처럼 말이다.



수청리 8남매 엄마, 호롱골댁 전상서

류혜수 기원 |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부

장마철에 가깝게 접어든 후덥지근한 날씨에 발두령처럼 깊이 패인 이마 주름살 사이로 송글송글 소금기 가득한 땀줄기가 연신 쏟아져 내리지만, 질끈 눈 한 번 감으시고 황토 문은 소매 자락으로 쓱쓱 훑치시며 마늘대를 손질하는 우리 어머니.

막둥이가 성장하여 40을 바라보지만 저는 언제나 당신의 7살 난 깨복쟁이 아들입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당신의 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아이들 엄마가 한 상 가득 차려 놓은 반찬들을 보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저이지만 쉽게 손가락 젖가락이 가질 않더라고요.

혹 한 입 얻어먹어 보려 아들, 딸에게 “맛있냐?” “아빠 한 입만 줘라” 하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돼 내 끼야” 잘라 말하는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배는 부릅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거겠지요. 그 옛날 철 없는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매일 먹는 단무지 장아찌, 발효가 너무 되어 허영계 뜯 목은 김치 가지고 반찬 투정하던 나에게 꿀밤을 날리

시던 어머니.

“배고파 봐라, 소금하고 밥을 먹어도 맛있어~ 이눔아~”

그렇게 호통치시던 어머니.

얻어맞는 막둥이보다 당신 맘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지난 시절 다 기록하려면 종이도 우리 수령 눈 만큼 넓고 길어도 다 늘어놓지 못하겠죠.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 환경으로 인해 지금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당신의 지칠 줄 모르는 성실과 내 할 도리는 무조건 한다는 책임의식이 저희들에게 유산이 되어 어느 어떤 가족, 개인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찬란할 어머니의 향훈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하는 대로 당신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도보다 위대한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라고 하네요.

계화, 계자, 현수, 명자, 민수, 명화, 해수, 명희 온 가족을 위해 늘 기도 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어머니와 지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글을 줄입니다.

막둥이 생일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호롱골댁과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며 씬.



자연의 眞美 쑥



현대미포조선 의장 1부 | 김종규 기원

솟아난 쑥잎에서
햇볕의 감사함 느끼며
계절이 바뀔을 알게 됩니다.

짙어진 쑥잎에서
바람의 고마움을 느끼며
세월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만져본 쑥잎에서
자연의 眞美를 느끼며
세상의 따뜻함을 알게 됩니다.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1



불안

(알랭 드 보통 저)

다양한 시각과 깊이로 불안의 원인과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위가 구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인간은 새로운 불안의 영역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맞춰 살아 가다보니 불안이 촉발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알랭 드 보통이 제시하는 불안에 대한 해법과 처방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용섭 대리

현대중공업 조선외주제작구매부

2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입니다. 그가 직접 쓴 '명상록'은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로,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읽는 책, 비즈니스맨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그리고 국내외 대학생들의 필독서 리스트에 빠짐없이 오르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저자가 전장에서 쓴 것으로, 저자 혼자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매우 압축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천천히 책을 읽다 보면 헛되게 살아온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화려함에 현혹되어 본질을 잃어가는 요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윤섭 대리

현대미포조선 전장설계부

3



100 나에게 건네는 말

(전승환 저)

온전함과 가득함 무엇보다 충만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 100, 여기, 누구보다 가장 가까워야 할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힘겨운 날들을 버텨온 자신에게 속 깊은 위로와 따뜻한 응원 말을 건네는 '선물 같은 책'입니다.

1부터 100까지 나를 위해 마련된 빈 공간에 한 문장 한 문장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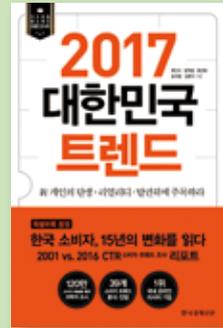
그러다 보면 나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들로 한 권의 책이 완성됩니다.

동시에 세상 하나뿐인 '나를 닮은 책'이 만들어 집니다.

김희영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4



2017 대한민국 트렌드

(최인수 외 4명 著)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소비자들의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을 확인하고 트렌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소비자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리한 소비자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다른 소비자의 니즈가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석 대리

현대중공업 해양기술영업2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wlgusdlf0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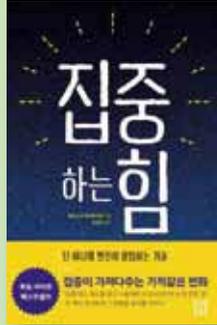
지식

(EBS 지식채널 e)

이 책은 2005년 9월부터 EBS에서 방송되기 시작한 5분짜리 동영상 프로그램인 '지식채널 e'의 영상들을 글로 편집하여 모아 엮은 책입니다. '지식채널 e'는 과학, 사회, 인간, 교육,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강렬한 영상과 음악,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소소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지식, 접하기 어려운 소식, 꼭 알아야 했을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영상의 내용을 종이로 고스란히 옮긴 듯 감각적으로 편집한 것이 특징이며, 영상에서는 시간이 모자라 담을 수 없었던 내용들을 각 파트마다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송기선 대리
현대미포조선 공사지원부

6



집중하는 힘

(마르코 폰 뮌하하우젠 저)

본래 하고자 했던 일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만 다른 일이 머릿속에 끼어들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팁들을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집중력 정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책의 앞머리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집중력 테스트'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 곳곳에 등장하는 질문 노트에 직접 답변을 적어가며 일어나갈 수 있어 책 읽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평소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 사우들은 이 책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박정은
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7



먹어서 약이 되는 산나물 50가지

(이형설 펴냄)

봄이 되면 지천에 산나물이 널려 있습니다. '들풀', '잡초'라고 불리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나물들은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50가지 산나물의 모습을 정리해둔 책입니다. 어린순부터 다 자란 후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옛 의서에 나온 효능과 민간요법, 요리법 등을 함께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사진과 정보를 모았다는 저자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맛있고 몸에도 좋은 산나물! 이 봄날에 읽으면 딱 좋은 책입니다.

김인수
현대이엔티

8



아침 5시의 기적

(제프 샌더스)

사람들은 늘 변화를 꿈꾸지만 현실을 쉽게 바꾸진 못합니다. 저자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쁜 일정에 치이면서 좋아하는 마라톤 연습을 일주일에 한번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반복되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아침 5시 기상'입니다. 누구보다 아침잠이 많은 그에게 5시 기상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왜 아침 5시 기상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실천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무심코 흘러보낸 아침 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두 배의 근사한 삶을 원하는 사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김세희
현대삼호중공업 산업기술부



제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 남에게 빌려줘도 될까요?

사업을 한다는 고등학교 동문 친구 녀석이 어느 날 찾아와 통장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도 제 명의로 개통해 달라고 합니다.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사례금도 넉넉하게 준다고 합니다.

한 동안 동문회에도 나오지 않고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친구라서 통장을 빌려주기가 꺼림칙하긴 한데, 요즘 벌이가 시원찮아서 용돈이나 벌어들일까 하는 욕심도 생깁니다.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은행통장, 직불카드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매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도2940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은행통장을 '접근매체'라고 칭하고 있는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 6조 3항 1호),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제 6조 3항 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 6조 3항 3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사례금도 받았으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관련해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남에게 주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SKT, KT, LG U+ 등)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전기통신역무'라고 정의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제 30조),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3도6062 판결 참조).

따라서 친구에게 사례금을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다른 가족, 친지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범죄단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굳이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약 명의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부과할 의무가 발생하고,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양도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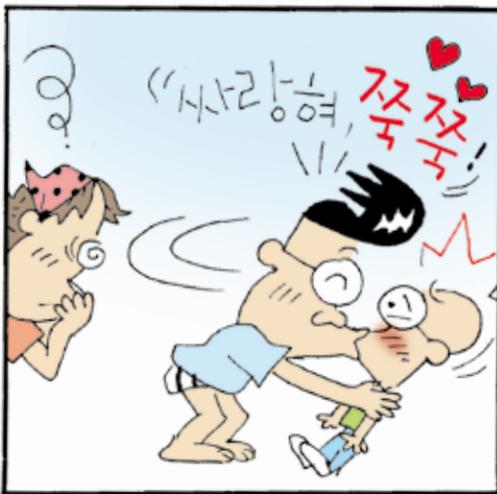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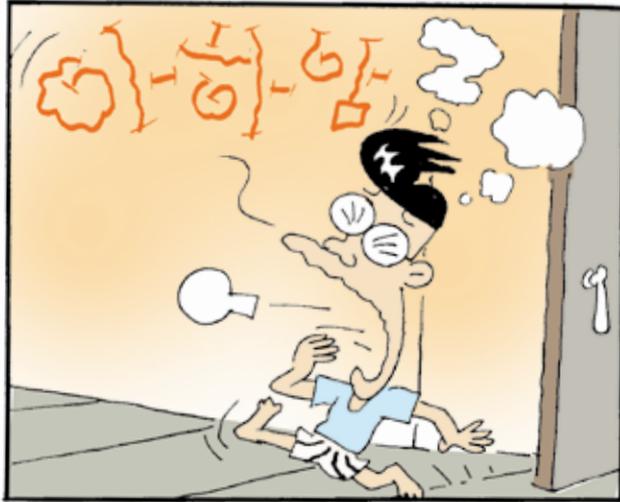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 ☎02-746-4667

현重 **넌빙작부부** 2 by K신득



눈썰미 퀴즈



가로 열쇠

- 1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작업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00제일.
- 2 현대일렉트릭이 생산하는 대표 제품 중 하나로, 전자 상호 유도 작용을 이용해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
- 3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 목적 혹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고유의 성질 및 성능의 총칭.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이것과 관련된 모든 낭비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00 실패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p.36 참고)
- 4 '우상'이라는 뜻으로, 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젊은 연예인. 000 가수, 000그룹 등으로 사용됨.
-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살아가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라이프스타일. (p.68 참고)
- 6 광물이 많이 묻혀 있는 광맥으로, 손쉽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익어 금, 황재, 000를 캐다.
- 7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5월은 00의 달.

세로 열쇠

- 1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 2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는 것. 주로 농촌에서 서로의 일을 거들며 품을 지고 값은 교환동을 일컫는다.
- 3 다시마목 미역과에 속하는 1년생 조류(藻類)로서, 울산 주전동의 대표적인 특산물. 3월부터 5월 사이에 해녀들이 직접 채취하며 바닷바람에 건조시켜 깊고 구수한 맛이 난다. (p.46 참고)
- 4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국가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아스타한스틴 해양 설비는 이 국가의 해역에 설치돼 심해 개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p. 21 참고)
- 5 아날로그와 대응되는 의미로, 여러 데이터를 0,1의 부호로 변환해 표현하는 방식.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의 조직, 프로세스,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00트렌스포메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p.29 참고)
- 6 정확도와 정밀도를 포함하는 말. AASTA HANSTEEN TOPSIDE 공사부 구조팀은 정확한 00관리를 발주처의 까다로운 안전과 품질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p.22 참고)

퀴즈 당첨자

-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이수필 현대미포조선 의장2부
- Hotel Hyundai 울산 뷔페권(2인)**
조아라 현대중공업 박용기계영업2부
-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기대섭 현대일렉트릭 배전변압기부
박기영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 후생시설 이용권(1만원)**
김인수 현대중공업 현대이엔티
정현석 현대중공업 해양기술영업2부
서용섭 현대중공업 조선외주제작구매부
박영석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박금병 현대건설기계 품질경영부
박성진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김재신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김태훈 대진이엔지)

-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김덕용 현대중공업 대조립5부
한현수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 울산현대축구단 사인볼(1개)**
서준원 현대중공업 기계의장부
이대원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3부
박순용 현대건설기계 부품사업부
김태균 현대미포조선 선장설계부
노진환 (주)홍승엔지니어링

-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이상원 현대중공업 의장1부
이대우 현대중공업 조선품질경영부
전홍배 현대일렉트릭 자재구매운영부

- OUTBACK 식사권**
김나나 현대중공업 조선용연공장부
김용설 현대중공업 기술관리부
이승호 현대미포조선 선체생산설계부

- Hotel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박재근 현대삼호중공업 의장부

- 사내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김동원 현대삼호중공업 판별조립부
진경준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이근남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박현재 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
장춘익 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

- 호텔현대목포 케이크 교환권(1매)**
임병우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 신안천일염**
안혜경 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이선경 현대삼호중공업 대이엔지니어링

지난호 정답

							뉴	스
가	상	현	실				노	
족		대		지			멀	
		일	기	게				
		렉		차	입	금		
		트	럼	프				
		릭		랑	드	론		
				스	라			
					마	무	리	

세로 5번의 정답을 5월 20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주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
드넓은 공간
저렴한 가격



단체 모임, 행사 장소로 안성맞춤 한마음식당

가족과 함께 편안한 공간, 저렴한 가격으로
한 곳에서 즐기는 중식·한식·양식의 다양한 메뉴

홀 270석
프라이빗 룸 5개 212석

한마음회관 2층
영업시간
AM 11:00 ~ PM 21:00
예약 | 052-209-7979~80



Essential for Today Potential for Tomorrow

4월 1일, 현대일렉트릭이 전기전자 전문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세상에 빛을 밝히고 고객의 성장을 이끄는 기업.

▲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은
전력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ower Solution



발전, 송변전 등 전력계통에 기기 및 시스템 제공

Industrial Solution



산업플랜트 및 일반산업분야에 기기 및 시스템 제공

Marine Solution



선박 및 해양 설비의 전장시스템 제공

Energy Solution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솔루션 제공